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st of General Books Included in *Sillok-Hyeongjian* in the 17th Century

안 미 경 (Ah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사고별 연도별 분석 |
| 1.1 연구의 목적 | 3.1 사고별 분석 |
| 1.2 연구방법 및 내용 | 3.2 연도별 분석 |
| 2. 서명 및 권·책수 보정 | 4. 결론 |
| 2.1 서명 보정 | <참고문헌> |
| 2.2 권·책수 보정 | |

< 초 록 >

조선시대 각 사고에서는 실록을 비롯하여 소장된 장서를 점검한 기록인 실록형지안을 남겼다. 본 연구는 17세기 적상산사고,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정족산사고 등 네 곳의 사고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 31종을 대상으로 여기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목록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네 곳의 사고 가운데 일반서책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던 곳은 정족산사고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책을 수록하고 있었다. 정족산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서 의궤류, 천문산법류, 개인문집 등을 월등히 많이 수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정족산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서 차별화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족산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고들 사이에는 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17세기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17세기 전반기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사고들이 17세기에 들어서 재건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들은 당시의 사고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연구자에게 보다 심화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왕실 도서의 목록을 재정비하여 귀중본을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要語: 사고, 실록형지안, 일반서책, 적상산사고,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정족산사고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38396).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chungahnm@hanmail.net)

접수일: 2017년 8월 27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7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ABSTRACT>

The respective National Archive (史庫) of the Joseon Dynasty left the *Sillok-Hyeongjian* (實錄形止案), the collection list of book stock including *Silloks* (Annals of Joseon Dynasty).

This study examined the list of general books included in 31 kinds of *Sillok-Hyeongjian* which had been recorded throughout the 17th century at four National Archives which were the National Archive of Jeoksangsan, the National Archive of Odaesan, the National Archive of Taebaeksan, and the National Archive of Jeongjoksan. The results found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Archives which included the longest list of general books among them was the National Archive of Jeongjoksan, as it contained one third of the entire books.

The National Archive of Jeongjoksan contained much more *Euigwe* (Ritual Protocol Manuals, 儀軌類), *Cheonmunsanbeop* (Astronomy and Arithmetics, 天文算法類), Individual Collections and etc. than others.

Thus, it was found that the National Archive of Jeongjoksan had special status and functions compared to other National Archive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re were no significant quantitative differences in collections between the remained three National Archives except the National Archive of Jeongjoksan.

Next, when this study looked at the yearly changes of the volumes of general books included in the *Hyeongjian* in the 17th century, it was possible to see that it was growing sharply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and maintained a certain size in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Through these changes, this study could get a sense of the process of rebuilding of the National Archives in the 17th century which were destroyed by Japanese Invasion (1592) and Manchu Invasion (1636), as the general books included in the *Hyeongjian* well reflected the situa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at the time.

In conclusion, this study hope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in-depth research data to related researchers, and also help discover valuable books by rearranging the list of royal books in the collections of the Gyujanggak Library (Royal Library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Jangseogak Library.

Key words: National Archive, *Sillok-Hyeongjian*, General Books, National Archive of Jeoksangsan, National Archive of Odaesan, National Archive of Taebaeksan, National Archive of Jeongjoksa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조선시대 史庫는 『조선왕조실록』의 관리 실태를 장부로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이것이 바로 실록형지안인데 실록형지안은 각 사고에서 봉안, 포쇄, 고출, 이안, 봉심, 보수 등의 사유로 사고를 열 때마다 그 사유와 함께 보관 상태를 기록하였다. 실록형지안은 각 사고별로 작성하여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사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현재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실록형지안에는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여러 주제 분야의 일반서책의 서명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사고별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첫째 시기별 특징을 밝히고, 둘째 각 사고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며, 셋째 일반서책의 목록을 소개하여 해당 관련 연구자에게 보다 심화된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넷째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왕실도서의 목록을 재정비하여 귀중본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록형지안은 널리 알려진 자료는 아니다. 신병주가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 자료를 분석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 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실태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¹⁾ 배현숙은 서지학적 관점에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조선왕조실록』의 형태적인 분석과 교감, 번역, 서지에 대한 작업을 행한 바 있다.²⁾ 김정미는 조선시대 사고 실록형지안의 구성과 종류에 대해 분석을 하였고,³⁾ 조계영은 실록형지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외규장각 형지안과 선원록 형지안에 대해 연구하였다.⁴⁾ 하지만 기존 연구는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놓친 일반서책의 현황과 변화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실록형지안은 봉안이나 포쇄, 고출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작성되어 1910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이 남아 있다. 이들 형지안들에 수록되어 있는 일반서책의 목록을 시간 순으로 추적하면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왕실도서의 역사적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록형지안에는 서책의 목록 그 자체만이 아니라 서책의 고출이나 반사서책, 출처, 보관 상태 등 사고 운영의 구체적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록형지안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못지않게 자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서책 목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테마인 것이다.

1) 신병주, “실록형지안을 통해본 조선왕조실록의 관리체계,” 『국사관논총』 102(2003).

신병주, “조선후기의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17(2008).

2) 배현숙, 『조선실록연구서설』 (대구: 태일사, 2002).

3) 김정미, “조선시대 사고형지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4) 조계영, “외규장각의 기록물 보존과 외규장각형지안의 특징,” 『고문서연구』 46(2015).

1.2 연구방법 및 내용

조선 후기 실록형지안은 정족산,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등 네 곳의 사고별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목록을 사고 간에 횡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렇게 횡적인 비교를 하는 이유는 사고들 사이에 일반서책의 규모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실록형지안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정족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되어 있는 일반서책의 수량이 다른 사고의 형지안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상대적으로 한양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정족산사고가 여타의 사고들과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횡적인 비교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서책의 양적인 규모를 사고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 장서의 구성을 사고 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모든 사고에 공통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서적을 제외하고 사고별로 장서 구성이 특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장서 운영 방식을 사고 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장서 운영 방식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은 고출의 빈도이다. 사고마다 고출의 빈도가 차이가 난다면 사고별로 그 기능이 특성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시기는 17세기로 국한하였다. 연구 대상 시기를 17세기로 국한한 이유는 조선 후기 사고의 체제가 이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전하는 실록형지안도 17세기까지만 소급된다. 조선 전기에도 실록형지안이 작성되었겠지만 임진왜란 때 여러 사고들과 함께 불타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자료가 17세기부터 시작되므로 연구도 17세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실록형지안은 17세기부터 시작하여 1910년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일단 17세기에 작성된 실록형지안으로부터 연구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정족산,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등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이다. 이 가운데 정족산사고의 경우 애초 마니산에 있던 것을 1660년(현종 1)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적상산사고의 경우 애초에 묘향산에 있던 것을 1634년(인조 12)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이상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은 연구 대상 시기를 17세기로만 한정하더라도 약 150여 종이 된다. 이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 간의 횡적 비교를 위해 같은 해에 네 곳 모두에서 실록형지안이 작성된 해를 뽑아보았다. 그 결과 1661년, 1677년, 1689년, 1690년, 1691년 등 다섯 해가 추출되었다. 우선 이 다섯 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다섯 해는 모두 17세기 후반에 해당하고 1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은 한 해도 없다는 점이었다.

17세기 전반에는 1610년, 1632년, 1645년 등 세 해에 적상산사고와 오대산사고와 태백산사고 세 곳에서 실록형지안이 작성되었다. 정족산사고 하나만 빠진 것은 이때까지는 정족산사고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7세기 전반 강화도에는 마니산사고가 있었고 실록형지안도 작성되었

다. 따라서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을 다른 세 곳 사고의 형지안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곳 사고에서 모두 실록형지안이 작성되던 1610년, 1632년, 1645년 등 세 해에는 마니산사고에서 실록형지안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 위 세 해에서 가장 가까운 해에 작성된 실록형지안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1610년에 가장 가까운 해는 1611년이었고 1632년과 가장 가까운 해는 1633년이었다. 1645년과 가장 가까운 해는 시간적 간격이 넓은 1654년이었으므로 부득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연도	묘향산/적상산사고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마니산/정족산사고
1	1610	○	○	○	1611년
2	1632	○	○	○	1633년
3	1645	○	○	○	×
4	1661	○	○	○	○
5	1677	○	○	○	○
6	1689	○	○	○	○
7	1690	○	○	○	○
8	1691	○	○	○	○

이상 8개 연도에 4개 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은 모두 31종이며 이것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이 31종의 『실록형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실록형지안

번호	작성연월일	서명	목적	사고	분류번호
1	1610(광해2) 3. 3	萬曆三十八年(1610)三月初三日形止案	포쇄	묘향산	藏2-3790
2	1632(인조10) 6. 18	崇禎五年(1632)六月十八日全羅道道茂朱縣赤裳山城實錄曝曬	포쇄	적상산	藏2-3723
3	1645(인조23) 4	崇禎十八年乙酉(1645)四月日實錄曝曬形止案	포쇄	적상산	藏貴2-3759
4	1661(현종2) 11. 10	順治十八年(1661)十一月日實錄奉安後曝曬形止案	봉안후포쇄	적상산	藏2-4905
5	1677(숙종3) 10. 8	康熙十六年(1677)十月日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봉안후포쇄	적상산	藏2-3781
6	1689(숙종15) 9	康熙二十八年(1689)九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포쇄	적상산	藏貴2-3783
7	1690(숙종16) 5	康熙二十九年(1690)五月日赤裳山實錄考出時形止案	고출	적상산	藏貴2-3729
8	1691(숙종17) 9	康熙三十年(1691)九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포쇄	적상산	藏貴2-3763
9	1610(광해군2) 10. 3	萬曆三十八年(1610)十月初三日形止案	포쇄	오대산	奎9498
10	1632(인조10) 8. 4	崇禎五年(1632)八月初四日曝曬形止案	포쇄	오대산	奎9328
11	1645(인조23) 9	順治二年九月八日曝曬時形止案	포쇄	오대산	奎9336
12	1661(현종2) 8	順治十八年辛丑(1661)八月二十七日奉安後曝曬形止案	봉안후포쇄	오대산	奎9330
13	1677(숙종3) 10. 6	康熙十六年丁巳(1677)十月初六日曝曬形止案	봉안후포쇄	오대산	奎9411
14	1689(숙종15) 9	康熙二十八年己巳(1689)九月十九日曝曬時形止案	포쇄	오대산	奎9380
15	1690(숙종16) 8	康熙二十九年(1690)庚午八月日曝曬時形止案	고출포쇄	오대산	奎9490
16	1691(숙종17) 9	康熙三十年辛未(1691)九月日曝曬時形止案	포쇄	오대산	奎9324
17	1610(광해2) 11. 21	萬曆三十八年(1610)十一月二十一日形止案	포쇄	태백산	奎9385
18	1632(인조10) 7. 16	崇禎五年(1632)七月十六日形止案	포쇄	태백산	奎9275
19	1645(인조23) 7	乙酉(1645)七月初一日形止案	포쇄	태백산	奎9681

번호	작성연월일	서명	목적	사고	분류번호
20	1661(현종2) 9. 3	順治十八年辛丑(1661)九月初三日曝曬形止案	봉안후포쇄	태백산	奎9220
21	1677(숙종3) 1. 26	丁巳(1677)正月二十六日曝曬形止案	포쇄	태백산	奎9300
22	1689(숙종15) 9	康熙二十八年]己巳(1689)九月日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태백산	奎9511
23	1690(숙종16) 5	庚午五月日實錄考出時形止案	고출	태백산	奎9513
24	1691(숙종17) 8	辛未八月日曝曬太白山上實錄形止案	포쇄	태백산	奎9705
25	1611년(광해3) 5. 2	萬曆三十九年辛亥(1611)五月初二日京畿江華府史庫曝曬形止案	포쇄	마니산	奎9664
26	1633(인조11) 7. 26	崇禎六年七月二十六日史庫曝曬時形止案	포쇄	마니산	奎9598
27	1661(현종2) 11. 2	順治十八年(1661)十一月初二日孝宗朝實錄奉安後曝曬時形止案	봉안후포쇄	정족산	奎9506
28	1677(숙종3) 8	康熙十六年(1677)八月日實錄曝曬時形止案	포쇄	정족산	奎9601
29	1689(숙종15) 4	康熙二十八年(1689)四月日考出時形止案	고출	정족산	奎9618
30	1690(숙종16) 7	康熙二十九年(1690)七月日實錄考出時形止案	고출	정족산	奎9355
31	1691(숙종17) 10	康熙三十年(1691)十月日實錄曝曬時形止案	포쇄	정족산	奎9607

2. 서명 및 권·책수 보정

2.1 서명 보정

고서는 현대서와 달리 서책의 여러 곳에 서명이 기재되어 때문 권수제를 으뜸 정보원으로 채기한 다. 그 이유는 권수제가 어떤 곳에 기재된 서명보다 가장 완전한 정식 서명이며, 후세인이 재간하거나 전사할 때도 권수제를 그대로 옮겨 쓰기 때문에 동일한 서책이라면 어느 판을 막론하고 서명이 일정하기 때문이다.⁵⁾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서명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어서 서책의 여러 곳에 서로 다른 서명이 기재되는 까닭에 각 사고의 형지안마다 서명을 약간씩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관이 형지안을 작성할 때 책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제목을 보고 이를 형지안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 정식 서명이 아니라 略書名이나 異書名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서명을 오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서명은 同書異名으로 책 내용은 같지만 책 이름만 다른 경우이다. 따라서 형지안에 기재된 서명만 가지고는 동일한 서책을 서로 다른 서책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것은 형지안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서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명을 보정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하여 작성된 형지안들 사이의 종적 추적과 각 사고별 횡적 비교를 통해 동일한 서책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현전본 및 각종 목록을 참고하여 약서명, 이서명, 서명오기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만약 현전본이 있을 경우 현전본의 권수제를 기준으로 서명을 보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서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형지안에 수록되어 있는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5)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下)』(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둔다. 이상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약서명, 이서명, 서명요기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서명을 보정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略書名, 異書名, 書名誤記

번호	묘향산/ 적상산사고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마니산/ 정족산사고	서명보정
약서명					
1	辟瘟方/ 辟瘟	辟瘟方	辟瘟方	辟瘟方	簡易辟瘟方
2	五禮儀	五禮儀	五禮儀	五禮儀	國朝五禮儀
3	大典	미수록	미수록	大典續錄	大典續錄
4	新續三綱行實	三綱行實	三綱行實	三綱行實	東國新續三綱行實
5	미수록	미수록	隱集	峒隱集	峒隱先生遺稿
6	諺解孟子	孟子諺解	孟子諺解	孟子諺解	孟子諺解
7	孟子	孟子	孟子	孟子	孟子集註大全
8	龜峯集	龜峯集	龜峯集	龜峯集	批選龜峰先生詩集
9	四聲	四聲通解	四聲通解	四聲通解	四聲通解
10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射侯詩	射侯御製詩
11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三灘集	三灘先生集
12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西厓樂府	西厓擬古樂府
13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花潭集	徐花潭先生集
14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宣德五星凌犯	宣德十年月五星凌犯
15	小學	小學	小學	小學	小學諸家集註
16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授時曆立成/ 時曆捷法成	授時曆捷法立成
17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睡軒集	睡軒先生詩集
18	直指方	미수록	미수록	直指方	新刊仁齋直指方論
19	輿地勝覽	輿地勝覽	輿地勝覽	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20	心經	心經	心經	心經	心經附註
21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胎產集要/ 胎產集	諺解胎產集要
22	禮說	禮說	五禮先生說分類	禮說	五禮先生說分類
23	海篇心鏡	海篇心鏡	海篇心鏡	海篇心鏡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24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牛溪集	牛溪先生集
25	綱目	綱目	綱目	資治通鑑綱目	資治通鑑綱目
26	周易	周易	周易	周易	周易傳義大全
27	朱子書	朱子書節要	朱子書節要	朱子書節要	朱子書節要
28	中庸九經衍義	九經衍義	中庸九經衍義	미수록	中庸九經衍義
29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聽松集	廳訟先生文集
30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冲庵外集/ 冲庵集	冲庵先生集
31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唐太宗帝範/ 帝範	太宗帝範附音註解
32	미수록	미수록	圃隱集	圃隱集	圃隱先生文集
33	辟疫方/ 辟疫	미수록	辟疫神方	辟疫神方	辟疫神方
34	漢史列傳	漢史/ 漢史列傳	漢史列傳	漢史列傳	漢史列傳
35	定陵碑文	定陵碑文	定陵碑文	定陵碑文	桓祖定陵神道碑
36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晦齋集	晦齋先生文集
37	字會	訓蒙字會	訓蒙字會	字會	訓蒙字會
이서명 및 서명요기					
1	左傳	左傳	左傳	春秋經傳集解	春秋經傳集解
2	國朝兵鑑	東國兵鑑	東國冬鑑	東國兵鑑	東國兵鑑
3	攷事撮要	攷事撮要	攷事撮要	攷事撮要	攷事撮要
4	國朝兵鑑	東國兵鑑	東國冬鑑	東國兵鑑	東國兵鑑
5	小學	小學	孝學	小學	小學諸家集註
6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眞日集	眞逸集
7	嘉禮都監儀軌	家禮都監儀軌	嘉禮都監儀軌	嘉禮都監儀軌	嘉禮都監儀軌

2.2 권·책수 보정

각 사고별로 작성된 실록형지안들은 수록된 일반서책의 수량을 件, 卷, 冊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각 사고마다 件, 卷, 冊의 기재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수록된 일반서책의 규모를 계산할 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적상산사고의 실록형지안의 경우 卷數와 冊數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1689년 9월 실록형지안에 “孟子諺解 21卷”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기재내용으로만 본다면 21卷이 1件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전하는 적상산본 『孟子諺解』는 14卷 7冊이 1件에 해당한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孟子諺解』 21卷은 21冊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孟子諺解 3件(各 14卷 7冊)”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또 “春秋經傳集解 14卷” 경우 “春秋經傳集解 30卷 14冊”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는 일반서책의 卷數와 冊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적상산사고의 실록형지안뿐만 아니라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대산과 태백산의 경우 卷冊數를 ‘冊數’로만 기재하였고, 정족산의 경우 ‘卷數’로만 기재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관들이 실록형지안을 작성할 때 卷冊數를 기재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마다 기재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고서에서 卷은 서지적인 책의 순서로 원래 책이 생산될 때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冊은 물리적인 책의 순서로 책의 소장자가 임의로 책을 묶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규모를 계산할 때 권수와 책수를 먼저 구분한 다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록형지안에 기재된 일반서책들의 현전본과 각종 장서목록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 여러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동일서책들을 횡적 종적으로 추적 비교하여 권책수를 보정하였다. 이렇게 서명과 권책수를 보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실태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3. 사고별 연도별 분석

3.1 사고별 분석

3.1.1 묘향산/적상산사고

적상산사고는 1614년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성 안에 설치한 사고이다. 이 사고가 설치된 것은 1614년이지만 『조선왕조실록』은 1633년 1월 이전까지는 묘향산사고에 있었다. 묘향산사고에 있던 모든 서책이 적상산사고로 완전히 이관된 시점은 1634년(인조 12)이었다. 1634년 12월 3일에

작성된 『香山實錄曝曬移安茂朱赤裳山城形止案』에는⁶⁾ 23종 30건의 일반서책이 기재되어 있다. 23종의 서책마다 각각 “香山來 甲戌奉安”이라 하여 묘향산에서 옮겨와 甲戌年(1634)에 봉안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1634년 12월 3일 『조선왕조실록』이 적상산사고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묘향산사고는 폐지되었다.⁷⁾

묘향산/적상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은 1610년 『東國兵鑑』, 『周易諺解』, 『皇華集』 3종 3건으로 출발하여 1691년 104종 161건까지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반서책 목록에 큰 변화를 보였던 연도로는 1645년, 1677년, 1689년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먼저 1645년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1632년 10종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1645년에 33종 57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1634년 묘향산사고의 서책과 적상산사고의 서책이 합쳐지면서 일반서책의 양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두 사고의 서책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중복된 서책의 건수도 24건이 되었다. 주로 사서언해류, 소학류, 형지안류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1645년의 실록형지안에는 의제가 1종도 수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같은 해 작성된 오대산사고 형지안에는 11종, 태백산사고 형지안의 형지안에는 14종의 의제가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적상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1661년에 들어서야 의제가 수록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1645년 5월 13일 『東國新續三綱行實』 1종을 한양으로 가지고 가서⁸⁾ 20년이 지난 1665년 12월에 다시 적상산사고로 되돌려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⁹⁾

다음으로 1677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61년 43종 72건이던 것이 1677년 74종 122건으로 늘어났다. 1661년과 비교하면 31종 50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 서책별로 “乙巳(1665) 12月日 入上”이란 기재내용을 가지고 있는 서책들이다. 즉 1665년 12월 적상산사고에 올린 책이 무려 28종이 된다. 그 중 경상도에서 수송되어 온 것이 12종이고, 충청도에서 수송되어 온 것이 6종, 한양에서 보내오거나 한양으로 가져갔다 다시 되돌아 온 것이 8종, 기타 2종이었다.

경상도에서 수송되어 온 서책으로는 사서삼경 7종과¹⁰⁾ 『心經附註』,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五先生禮說分類』, 『伊川擊壤集』, 『中庸九經衍義』 5종을 들 수 있고, 충청도에서 수송되어 온 서책으로는 사서언해 4종과 『芝川集』, 『讀書錄』 2종을 들 수 있다. 한양에서 보내온 서책으로는 『大王大妃殿王大妃殿尊崇都監都廳儀軌』, 『册禮都監都廳儀軌』, 『祔廟都監都廳儀軌』,¹¹⁾ 『批選龜峰

6) 1634년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 『香山實錄曝曬移安茂朱赤裳山城形止案』(藏貴2-3793)
 7) 안미경,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2013. 9), 317.
 8) 1645년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 『崇禎十八年乙酉(1645)四月日實錄曝曬形止案』(藏貴2-3759)
 “以纂修聽啓辭乙酉(1645) 5月 13日 輸去京中”
 9) 1677년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 『康熙十六年(1677)十月日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藏2-3781)
 “乙巳(1665) 12月日 入上 前日輸去京中 還爲輸上”
 10) 論語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大學章句大全 中庸章句大全 詩傳大全 書傳大全 周易傳義大全(이상 7종)
 11) 乙巳(1665) 12月日 入上 辛丑年(1661) 京中輸來

先生詩集』, 『喪禮備要』, 『疑禮問解』, 『漢史列傳』 7종을¹²⁾ 들 수 있고 한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되돌아 온 서책으로는 『東國新續三綱行實』 1종을¹³⁾ 들 수 있다. 『東國新續三綱行實』은 1645년 5월에 한양으로 가져갔다가 1677년에 되돌아 온 책이다.¹⁴⁾ 기타 2종은 『紀效新書』, 『遲川先生集』으로 1665년 12월 적상산사고에 올린 책으로 실록형지안에는 1677년부터 수록되었다.

마지막으로 168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77년 74종 122건에서 1689년 102종 155건으로 장서량이 크게 늘어났다. 1677년과 비교하면 28종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형지안류이다. 형지안류는 1689년에 와서 비로소 개별서명을 일일이 기재하여 종수가 크게 늘어났다. 1689년의 또 다른 변화는 기재사항 중 책의 훼손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儀禮經傳通解 36卷內 7卷腐破 11卷傷汚 丁卯(1687)” 또는 “御製內訓 雨漏腐破” 등의 기재사항은 당시 적상산사고의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1.2 오대산사고

오대산사고는 1606년(선조 39) 5월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건물의 위치와 구조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09년 궁내부에서 조사한 『오대산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¹⁵⁾ 오대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은 1610년 4종 4건으로 출발하여 1691년 105종 158건까지 늘어났다. 이 기간 가운데 큰 변화를 보였던 연도로는 1632년과 1677년을 들 수 있다.

우선 1632년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10년 4종 4건에 불과하던 것이 1632년 36종 5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1632년 형지안에 수록된 36종의 일반서책은 대부분 사서언해류, 의궤류, 형지안류, 유가류, 의서류 등이었다. 그 가운데 형지안류는 『新上形止案』과 『各年形止案』 등 2종 15건이 수록되었다.

1632년 형지안의 일반 서책 목록에서는 각 서책마다 덧붙여놓은 기재사항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세 곳의 사고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서 책의 간행과 필사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모두 23종의 서책에 신해년(1611) 이후 감영에서 보내온 것을 월정사의 말사인 영감사에 두었다가 갑인년(1614) 포쇄시 사고에 편입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¹⁶⁾ 다음으로 10종의 서책에 중앙으로부터 반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중 6종

12) 乙巳(1665) 12月日 入上 京中輸來

13) 乙巳(1665) 12月日 入上 前日輸去京中 還爲輸上

14) 1645년 적상산 실록형지안 『崇禎十八年乙酉(1645)四月日實錄曝曬形止案』

“東國新續三綱行實: 以纂修聽啓辭乙酉(1645) 5月13日 輸去京中”

15) 宮內府, 『五臺山調查報告書』, 隆熙3(1909)

16) 辛亥年(1611)以後 本道監司處進送留置靈鑑寺 甲寅年(1614)曝曬時上閣: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詩經諺解 春秋經傳集解 訓蒙字會 經國大典 前後續錄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國朝五禮儀 東國兵鑑 樂學軌範

에는 반사된 연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¹⁷⁾ 4종에는 반사되었다는 표시만 기재되어 있다.¹⁸⁾

다음으로 1677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61년 60종 88건이던 것이 1677년 92종 137건으로 장서량이 크게 늘어났다. 1677년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특징은 각 서책마다 덧붙여놓은 기재사항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28종의 서책에 감영이나 한양으로부터 보내온 책을 정미년(1667) 8월 포쇄시 사고로 편입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중 의궤 3종은 한양으로부터 보내온 책이고,¹⁹⁾ 나머지 25종은 감영에서 보내 온 것이었다.²⁰⁾ 감영에서 보내온 것은 대부분 사서삼경, 사서연해, 유가서 개인문집 등이었으며 한양에서 보내온 것은 모두 의궤류였다. 둘째, 을묘년(1675) 5월 포쇄시 한양에서 내려 보낸 『東文選』 1종을 사고에 편입시켰으며 같은 해 9월 『谿谷先生集』과 『遲川先生集』 2종을 사고에 편입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²¹⁾ 셋째, 11종의 서책이 정사년(1677)에 사고에 편입되었는데²²⁾ 그 가운데 가례도감, 부묘도감, 존숭도감, 책례도감 실록찬수청 등에서 작성한 의궤가 7종이고 나머지는 형지안과 어필첩이나 명필첩 등이었다.

이상 1632년과 1677년의 실록형지안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頒賜處에서 오대산사고로 보내온 서책들을 그때그때 사고에 넣지 않고 월정사의 말사인 영감사에 모아 두었다가 포쇄나 봉안이 있을 때 한꺼번에 사고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3.1.3 태백산사고

태백산사고는 1606년(선조 39) 설치되었다. 그 위치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2리 가화서 근처로 알려져 있고, 사고 건물은 1910년 일제가 『조선왕조실록』을 강탈해간 뒤 방치하여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태백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은 1610년 7종 7건으로 출발하여 1689년 100종 146건까지 늘어났다. 이후 169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691년 97종 103건까지 떨어지게 된다. 형지안에

桓祖定陵神道碑 簡易辟瘟 攷事撮要 東醫寶鑑 辟疫神方 辟瘟新方 小學諸家集註 內訓 朱子書節要 龍飛御天歌 (이상 23종)

17) 天啓 6年(1626)8月日 頒賜: 皇華集/ 天啓 7年(1627)8月日 頒賜: 書傳大全/ 天啓 7年(1627)12月日 頒賜: 嘉禮都監儀軌/ 崇禎 2年(1629)12月日 頒賜: 小學諸家集/ 崇禎 4年(1631)閏11月日 頒賜: 大學諺解/ 崇禎 4年(1631)10月日 頒賜: 孝經大義(이상 6종)

18) 頒賜: 靖社振武功臣都監儀軌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이상 4종)

19) 丁未年(1667)自京來入: 大王大妃殿王大妃殿尊崇都監都廳儀軌 中宮殿冊禮都監儀軌 孝宗大王祔廟都監儀軌(이상 3종)

20) 自監營輸送 丁未(1667)8月 曝曬時上閣: 論語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大學章句大全 中庸章句大全 詩傳大全 書傳大全 周易傳義大全 春秋 中庸九經衍義 論語諺解 孟子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讀書錄 心經附註 朱文酌海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 心鏡 喪禮備要 五先生禮說分類 疑禮問解 月汀先生集 伊川擊壤集 芝川集 實錄曝曬時形止案 漢史列傳(이상 25종)

21) 乙卯(1675)5月 曝曬時自京下來上閣: 東文選(1종)/ 乙卯(1675)9月日入: 谿谷先生集 遲川先生集(2종)

22) 丁巳(1677)入: 嘉禮都監儀軌 祔廟都監都廳儀軌[神德王后] 祔廟都監都廳儀軌[仁宣王后] 祔廟都監都廳儀軌[顯宗大王] 尊崇都監都廳儀軌 中宮殿冊禮都監儀軌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東國名筆 列聖御筆 顯宗大王實錄[奉安]形止案 實錄曝曬時形止案(이상 11종)

수록된 일반서책의 종수가 크게 증가한 연도로는 1632년, 1677년, 1689년을 들 수 있다.

우선 1632년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10년 7종 7건에 불과하던 것이 1632년 35종 4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1632년 형지안에 수록된 35종의 일반서책에 대해 살펴보면 1611년에서 1631년 사이에 감영에서 보내온 서책과 중앙에서 반사한 서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영에서 보내온 서책은 모두 19종으로 만력 39년(1611)부터 42년(1614) 사이에 들어 온 서책들이다.²³⁾ 1년에 적게는 두 번에서 많게는 네 번까지 보내왔던 것이다. 이들 서책들은 대부분 사서언해류, 소학류, 유가류, 예류, 의가류, 정서류, 예술류 등이었다. 중앙에서 반사한 서책은 모두 12종이었다.²⁴⁾ 이들 서책들은 모두 천계연간과 승정연간에 반사되었으며 주로 사서언해류, 의례류, 소학류 등이었다.

다음으로 1677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61년 60종 65건이던 것이 1677년 79종 123건으로 늘어났다. 1677년은 태백산사고뿐만 아니라 적상산사고와 오대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숫자도 그 증가의 폭이 컸던 해이다. 이 해에 『논어언해』, 『맹자언해』, 『대학언해』, 『중용언해』 등 사서언해가 추가되었는데 같은 해 태백산사고뿐 아니라 오대산사고와 적상산사고에도 사서언해가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1677년의 형지안에는 을묘(1675) 4월 24일 포쇄시 『東文選』, 『大王大妃殿王大妃殿尊崇都監都廳儀軌』, 『中宮殿册禮都監儀軌』, 『伊川擊壤集』 등을 새로 가지고 와서 사고에 편입시켰다는 기록과 함께 을묘(1675) 4월 실록청 설치 때문에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를 한양으로 가지고 갔다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²⁵⁾ 한편 1677년 형지안에는 형지안류 29건이 새로 수록되었다. 1677년 이전 형지안을 작성할 때 누락되었던 것을 1677년에 와서 챙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68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89년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규모는 100종 146건이었다. 1689년은 다음 태백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숫자가 그 정점을 찍은 해이다. 1677년과 비교하면 『가례도감의궤』, 『부묘도감의궤』, 『실록찬수청의궤』, 『영정도감의궤』, 『존숭도감의궤』, 『책례도감의궤』, 『형지안』 등이 추가로 수록되었지만 각 서책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거나 소략하여 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1689년 이후 태백산사고의 일반서책의 건수는 1690년 99종 142건, 1691년 97종 103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것은 실록형지안 작성시기의 간격이 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690년 형지안

23) 萬曆 39年(1611)監司所送: 國朝五禮儀 春秋經傳集解(2종 7월 20일)/ 內訓 樂學軌範(2종 9월 4일)/ 萬曆 41年(1613)監司所送: 論語諺解 孟子諺解 小學諸家集註 朱子書節要 中庸諺解(5종 정월 15일)/ 簡易辟瘟方(1종 12월 12일)/ 經國大典 前後續錄(2종 9월 22일)/ 高麗史 詩經諺解 訓蒙字會(3종 12월 14일)/ 萬曆 42年(1614)監司所送: 龍飛御天歌(1종 3월 9일)/ 東醫寶鑑(1종 3월 25일)/ 辟疫神方(1종 5월 20일)/ 桓祖定陵神道碑(1종 6월 7일)

24) 天啓 6年(1626)8月日 頒賜: 皇華集(1종)/ 天啓 7年(1627)8月日 頒賜: 書傳大全(1종)
崇禎 2年(1629)12月日 頒賜: 小學諸家集註(1종)/ 崇禎 3年(1630)正月日 頒賜: 擊蒙要訣(1종)/ 崇禎 4年(1631)閏11月日 頒賜: 論語諺解 孟子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世子嘉禮都監儀軌 靖社振武功臣都監儀軌 禮葬都監儀軌[元宗] 都監贈錄(이상 8종)

25) 乙卯(1675)4月日 實錄設廳以持去

은 1689년 형지안과 비교하면 『王世子及嬪禮都監儀軌』와 『翰苑先生案』 등 2종 2건이 추가되었지만 대신 『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儀禮經傳通解』, 『顯宗大王改修實錄廳儀軌』 3종 3건과 중복서책 3건이²⁶⁾ 빠졌다.

1691년에는 형지안류 35건이 몽땅 목록에서 사라졌으며 의례류, 문집류 명필첩과 금석류 일부도 사라졌다. 이렇게 목록에서 사라진 서책이 있는 반면에 의례류와 예류 등 추가로 수록된 책도 6종 있었다. 이렇게 추가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것이 더 많았기 때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수치를 보였던 것이다. 목록에서 사라진 서책은 고출을 위해 한양으로 가져갔다 되돌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태백산사고 형지안에는 기록이 없어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다. 실물은 있는데 기재상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 태백산사고 형지안에는 전체 누계 524종 688건의 장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세 곳 사고보다는 적은 것이었다. 또한 각 서책에 대한 기재사항이 소략하여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1691년에 와서는 목록에서 사라진 서책들이 많아 전체 장서량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3.1.4 마니산/정족산사고

마니산사고는 1606년(선조 39) 설치되었다. 1653년(효종 4)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정족산으로 옮겼다. 1611년 마니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장서량은 70종 131건으로 다른 세 곳의 사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는 다른 사고가 아닌 마니산사고에서 내력을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춘추관, 성주사고, 충주사고는 건물과 서책 모두가 소실된 반면에 전주사고의 경우 참봉 吳希吉, 孫弘綠, 安義 등이 1592년(선조 25) 6월 14일 실록과 일반서책을 정읍군 소재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화를 면하게 되었다. 이후 전주사고에 보관하였던 실록과 일반서책은 1593년(선조 26) 아산을 거쳐 해주로 이동하였고 2년 뒤인 1595년(선조 28)에는 강화부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국왕이 피난했던 의주 행재소에서 가까운 영변의 묘향산 普賢寺 別殿에 임시사고를 설치하여 실록과 일반서책들을 옮겨 보관하였다. 1601년(선조 34) 영변부 사고로 이관하였으며 그 뒤 1603년(선조 36) 5월 다시 강화부사고로 옮겨왔다. 강화부에서 실록 복인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606년 작업이 종료한 후 5대 사고에 실록을 각기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때 춘추관과 태백산사고와 묘향산사고에는 新印本을, 오대산사고에는 校訂本을 보냈으며 전주사고에 보관하였던 원본은 마니산에 사고를 새로 지어 봉안하였다.²⁷⁾

이상이 실록이 옮겨진 내력이지만 일반서책에 대해 살펴보면 1601년에 작성된 영변부 사고 실록

26)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 祔廟都監都廳儀軌, 中庸諺解(이상 3건)

27) 鄭泰憲, “江華史庫의 沿革과 史庫地現況,” 『史庫地調查報告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74-90.

형지안에 60종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²⁸⁾ 1603년에 작성된 강화부사고의 실록형지안에는 일반서책은 단 1건도 수록되지 않았다.²⁹⁾ 하지만 1606년에 작성된 마니산사고의 실록형지안에는 일반서책이 무려 63종이나 수록되어 있다.³⁰⁾ 1606년에 작성된 마니산사고의 실록형지안에 수록되어 있는 일반서책의 내역이 대부분 1601년에 작성된 영변부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과 일치한다. 이 서책들이 1603년에 작성된 강화부사고의 실록형지안에는 왜 빠져 있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영변부사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일반서책들이 실록과 함께 강화부로 옮겨 왔다가 실록복간작업이 끝난 뒤 실록 新印本과 함께 묘향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니산사고로 옮겨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살펴본다면 이 서책들은 전주사고 때부터 실록과 운명을 같이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1611년 작성된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70종의 내력인 것이다.

1653년 마니산사고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때 『조선왕조실록』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일반서책은 다행히 화를 면하게 되어 정족산사고로 옮겨졌다. 정족산사고는 1660년(현종 1)에 11월에 완공되어 그 해 12월 『조선왕조실록』과 일반서책이 이안되었다. 정족산사고의 건물은 단층 건물로 건립되어 조선말까지 유지되다가 일제 강점기 어느 시점에 없어졌으며 1999년 증건되었다. 정족산사고는 설치 당시부터 사고 체제가 이미 갖추어졌기 때문에 1661년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수지도 143종 201건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이후 계속 늘어 1691년에는 185종 264건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경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610년 작성된 다른 세 곳 사고의 형지안에는 단지 14종 14건의 일반서책만을 수록하고 있음에 비해서 그 이듬해인 1611년에 작성된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에는 무려 70종 131건을 수록하고 있다. 종수만 따져도 4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런데 이 서책들 가운데는 1601년 영변부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책 60종 중 57종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천문산법류와 역사류에 해당하는 서책들이다. 영변부사고에 있었던 일반서책들이 옮겨옴에 따라 다른 사고보다 장서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족산사고의 형지안에는 다른 사고의 형지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의궤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었다. 『欽敬閣建設都監儀軌』, 『報漏都鑑儀軌』, 『南別殿重建廳儀軌』, 『誌石都鑑儀軌』, 『火器都監儀軌』, 『遷陵都監儀軌』, 『靖陵改葬都鑑儀軌』, 『穆陵修改都監儀軌』, 『影幀模寫都監儀軌』, 『冊寶修改時儀軌』, 『梁監軍接待都監儀軌』, 『祭器都監儀軌』, 『豊呈都監儀軌』 등 13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서책들은 전례서로 공영, 능, 영정, 보인, 모사, 접대, 제기, 음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귀한 서책들이다.

셋째, 『交食推步法』과 같은 천문산법류 18종은 다른 사고에는 없고 정족산사고 형지안에만 수록

28) 『萬曆29年辛丑(1601)9月初十日 平安道寧邊府四庫曝曬形止案』(奎10005)

29) 『萬曆31年癸卯(1603)10月18日 京畿江華府史庫曝曬形止案』(奎9485)

30) 『萬曆34年丙午(1606)6月初3日 京畿江華府史冊奉安形止案』(奎9467)

되어 있는데³¹⁾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영변부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서책들이었다.

넷째, 정족산사고 형지안은 다른 사고의 형지안에 비해 개인문집을 월등히 많이 수록하고 있다. 사고에 개인문집이 봉안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유독 정족산사고 형지안에 많이 수록된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정족산사고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는 개인문집은 모두 26종이다.³²⁾ 사고의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진 1661년 형지안부터 이미 개인문집을 많이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른 3곳의 사고보다 3배가 넘는 분량의 개인문집이 수록되었다.

다섯째, 1677년 형지안은 1661년 형지안보다 22종 46건을 더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각 서명에 덧붙인 기재사항에는 1593년(만력 21)부터 1677년(강희 16)까지 책의 刊寫 時期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72건 수록하고 있다. 물론 1661년 실록형지안에도 이러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만 1677년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섯째, 정족산사고는 다른 사고보다 지리적 위치가 가까운 만큼 고출의 빈도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점에서 다른 사고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실록형지안의 기록에 의하면 1687년 8월 포쇄 때 한양으로 가지고 간 서책이 모두 17종 있었다. 1689년 실록형지안에는 14종의 서책을 한양으로 가지고 갔으며,³³⁾ 1690년 실록형지안에는 『汲古集』, 『北征錄』 등 2종의 서책을 한양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1677년 형지안에는 『攷事撮要』 1종의 서책을 한양으로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들 대부분은 17세기에는 정족산사고로 되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세 곳의 사고와 비교하면 적상산사고와³⁴⁾ 태백산사고의 경우³⁵⁾ 각각 1종씩 고출되었고, 오대산사고의 경우는 고출된 것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 여러 사고별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지안에 일반서책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던 史庫로는 정족산사고를 들 수 있다. 누계 855종 1,220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이다. 오대산사고의 누계가 542종 814건이고, 태백산사고의 누계가 524종 688건이며, 적상산사고의 누계가 471종 737건을 고려한다면 정족산사고가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고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31) 庚午元曆 交食推步法 交食通軌 大統曆日通軌 四餘纏度通軌 宣德十年月五星凌犯 宣明曆吵交會 宣明曆經授時曆捷法 授時曆經立成 五星通軌 緯度太陽通經 諸家曆象集 重修大明曆 七政算 太陽通軌 太陰通軌 圓圓曆經(이상 18종)

32) 景軒集 汲古集 南冥先生文集 獨谷集 滯溪集 保閑齋集 三峯先生文集 三灘先生集 徐花潭先生集 成謹甫先生集 蘇齋先生文集 睡軒先生詩集 容齋集 牛溪先生集 李太白文集 佔畢齋集 曹溪集 止止堂集 晉山世稿 眞逸集 鐵城聯方集 廳訟先生文集 冲庵先生集 泰齋先生集 晦堂藁 晦齋先生文集(이상 26종)

33) 『康熙二十八年(1689)四月日考出時形止案』
丁卯(1687)8月日 曝曬時上京: 高麗史節要 三國史記 滯溪集 東國兵鑑 東國通鑑 宣明曆經 世醫得效方 授時曆捷法立成 諺解胎產集要 歷代兵要 止止堂集 眞逸集 晦堂藁 圓圓曆經(이상 14종)

34) 東國新續三綱行實: 以纂修聽啓辭乙酉(1645) 5月13日 輸去京中

35)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乙卯(1675)4月日 實錄設廳以持居

3.2 연도별 분석

17세기 『실록형지안』 들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규모와 내역의 전체적인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10년부터 1645년까지는 마니산을 제외한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들에 수록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며 1661년부터는 정족산을 포함한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다. 1611년과 1633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3.2.1 1610년

1610년 마니산을 제외한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에 총 14종 14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태백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가장 많은 건수인 7종 7건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이 오대산사고에 형지안 4종 4건, 묘향산사고 형지안에 3종 3건의 순이다. 이 가운데 묘향산사고 형지안에는 『東國兵鑑』, 『周易諺解』, 『皇華集』 등 3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3종의 일반서책은 오대산사고 형지안과 태백산사고 형지안에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3곳의 사고에서 중복하여 수록된 서책을 감안하면 1610년에 작성된 형지안에는 실제로는 8종의 서책만 수록되어 있는 셈이다.

오대산사고 형지안과 태백산사고 형지안에는 묘향산사고 형지안에 없는 의궤류가 수록되어 있다. 오대산사고 형지안에 『迎接都監賜祭廳儀軌』 1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태백산사고 형지안에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迎接都監都廳儀軌』, 『宣祖大王懿仁王后册禮都監儀軌』 등 3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표 3>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⁶⁾

<표 3> 1610년 묘향산사고,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번호	서명	사고
1	東國兵鑑	묘향산/오대산/태백산
2	周易諺解	묘향산/오대산/태백산
3	皇華集	묘향산/오대산/태백산
4	迎接都監賜祭廳儀軌[1609]	오대산
5	樂學軌範	태백산
6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1610]	태백산
7	迎接都監都廳儀軌[1610]	태백산
8	宣祖大王懿仁王后册禮都監儀軌	태백산
누계	14종 14건	

36) 사고명의 기재 순서는 각 실록형지안의 작성 연월일을 기준하여 묘향산사고 실록형지안(1610년 3월 작성), 오대산사고 실록형지안(1610년 10월 작성), 태백산사고 실록형지안 (1610년 11월 작성) 순서로 기재함. 이후 표에서도 실록형지안의 작성 연월일을 기준하여 사고 명을 기재함.

마니산사고의 경우 1610년에는 실록형지안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이듬해인 1611년 5월에 실록형지안이 작성되었다.³⁷⁾ 그 내용을 앞에서 살펴본 세 곳 사고의 형지안에 수록된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11년에 작성된 마니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은 무려 70종 131건이나 된다. 마니산사고가 궁궐과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세 곳의 사고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서책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역을 다른 세 곳의 사고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사고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東國兵鑑』, 『周易諺解』, 『皇華集』 3종의 서책이 마니산사고 형지안에도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다. 둘째, 오대산사고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었던 『迎接都監賜祭廳儀軌』 1종과 태백산사고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었던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樂學軌範』 2종도 마니산사고 형지안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6종의 서책이외에 64종 125건의 일반서책이 마니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되어 있다. 1611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렇게 마니산사고 형지안에는 다른 세 곳의 사고에 비해서 많은 서책 등을 수록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1611년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70종 중 57종이 1601년 영변부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되어 있던 책들이었다는 점이다. 1601년 영변부사고 실록형지안에는 60종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는데³⁸⁾ 『古日記』, 『李庭馨野史』, 『宣靖陵改葬儀軌』 등 3종의 서책을 제외한 나머지 57종의 서책이 1611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1601년 영변부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책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1611년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되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1601년 영변부사고 형지안에 수록되어 있는 일반서책들은 1603년 강화부로 이동하였고 실록 복원작업이 끝난 1606년 마니산사고로 옮겨졌다. 그리고 1606년에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63종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1601년 영변부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서책들에 비해서 3종이 추가된 것이었다.

1611년 작성한 형지안에는 모두 70종 131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 사이에 7종의 서책이 추가된 셈이다. 하지만 1606년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가운데 1611년에 와서 목록에서 빠진 책들도 있다. 『古日記』, 『李庭馨野史』, 『宣靖陵改葬儀軌』 등 3종의 서책이 그러한 예이다. 이 서책들이 목록에서 빠진 것은 한양으로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목록에서 빠진 책이 있는 반면 새로 추가된 책도 있었다. 『王世子册封天使迎接都監儀軌』, 『追崇都監儀軌』,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賜祭天使迎接都監儀軌』, 『賜祭廳儀軌』, 『應辦儀軌』, 『册禮都監儀軌』, 『左傳』, 『樂學軌範』 등 10종의 서책이 그것이다.

37) 『萬曆三十九年辛亥(1611)五月初二日 京畿江華府史庫曝曬形止案』(奎9664)

38) 안미경(2013), 311.

<표 4> 1611년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번호	서명	건수	번호	서명	건수
1	嘉禮都監儀軌	1건	36	宣明曆經	1건
2	各年形止案	9건	37	宣明歷步交會	1건
3	庚午元曆	1건	38	宣明歷要	1건
4	高麗史	3건	39	授時曆經	1건
5	高麗史目錄年表世家	2건	40	授時曆議	1건
6	高麗史列傳	3건	41	授時曆捷法立成	2건
7	高麗史節要	3건	42	新增東國輿地勝覽	1건
8	高麗史節要斤標	2건	43	樂學軌範	1건
9	高麗史節要字標	1건	44	歷代兵要	3건
10	高麗史志	2건	45	易學啓蒙	2건
11	高麗全史劔標	1건	46	王世子册封天使迎接都監儀軌	1건
12	高麗全史目標	1건	47	迎接都監賜祭廳儀軌	2건
13	貢案	1건	48	五星通軌	1건
14	觀音現相記	3건	49	五星通軌用數目錄	1건
15	交食推步法	2건	50	龍飛御天歌	2건
16	交食通軌	1건	51	緯度太陽通經	1건
17	國葬都監儀軌	1건	52	應辦儀軌	1건
18	國朝寶鑑	3건	53	貞觀政要	2건
19	大統曆日通軌	1건	54	周易診解	1건
20	東國兵鑑	1건	55	重修大明曆	1건
21	東國史記	1건	56	陣法	2건
22	東國史略	1건	57	册禮都監儀軌	1건
23	東國通鑑	4건	58	初學字會	2건
24	東文選	8건	59	追崇都監儀軌[光海君私親]	1건
25	兵將說	3건	60	春秋經傳集解	1건
26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2건	61	七政算內篇外篇	1건
27	北征錄	4건	62	太陽通軌	2건
28	章聖懿仁王后殯殿都監義軌	1건	63	太宗帝範附音註解	1건
29	四餘纏度通軌	1건	64	皇華集	4건
30	射侯御製詩	3건	65	回回曆各年交食	1건
31	山陵都監儀軌[懿仁王后]	1건	66	回回曆經度立成	1건
32	三國史	3건	67	回回曆法	1건
33	三國史記	2건	68	回回曆書	1건
34	三國史節要	1건	69	回回曆緯度立成	1건
35	宣德十年月日五星凌犯	1건	70	訓辭	6건
		계	70종 131건		

이상 1611년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을 통하여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1601년 영변부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소재를 찾을 수 있었다. 1611년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되었던 책들은 1606년 형지안에 이미 수록되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변부사고에 수록되었던 일반서책들은 강화부사고를 거쳐 마니산사고로 옮겨온 것이다.

3.2.2 1632년

1632년 마니산사고를 제외한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들에는 일반서책이 모두 81종 119건 수록되어 있다. 1610년에 작성된 형지안들에 모두 14종 14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22년 동안 각 사고에 소장되어 있는 일반서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 사고별로 살펴보면 오대산사고 형지안에 36종 57건, 태백산사고 형지안에 35종 44건, 묘향산사고 형지안에 10종 10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묘향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10종의 일반서책에 대해 살펴보면 이 가운데 9종의 서책이 1632년 6월 포쇄할 때 새로 가지고 온 서책이었다.³⁹⁾ 1610년의 형지안에 수록되었던 3종의 서책 가운데 1종만⁴⁰⁾ 1632년에 작성된 형지안에 수록되었으며 나머지 2종은⁴¹⁾ 목록에서 빠졌다. 이때 목록에서 빠진 2종의 서책은 1634년 묘향산사고와 적상산사고가 통합될 때 다시 수록되었다.

1632년에 들어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일한 서명의 서책이 중복되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610년에는 중복된 서책이 없어서 종수와 건수의 규모가 같았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실제 오대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57건 가운데 중복된 서책 21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백산사고 형지안은 44건 중 중복된 서책이 9건이다. 이렇게 중복된 서책이 많이 나타난 것은 1632년부터 형지안류가 대거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오대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各年形止案』 1종 7건, 『新上形止案』 1종 8건 등 모두 2종 15건의 형지안류가 중복해서 수록되었다. 그 결과 이렇게 중복 서책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오대산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의 경우 1632년부터 형지안류를 수록하기 시작하였으며 태백산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의 경우 이로부터 한참 후인 1677년부터 형지안류를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1632년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동시에 수록되어 있었던 서책으로는 『論語諺解』, 『孟子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小學諸家集註』, 『孝經大義』, 『皇華集』 등 7종을 들 수 있다. 이 서책들은 유학의 기본서적이었다. 한편 적상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는 서책으로는 『王世子嘉禮贈錄』 1종이 있고, 오대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는 서책으로는 『各年形止案』 1종 7건, 『新上形止案』 1종 8건,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1종, 『四聲通解』 1종, 『辟瘟新方』 1종 등 모두 5종의 서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태백산사고 형지안에만 수록되었던 서책으로는 『都監贈錄』,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宣宗大王懿仁王后冊禮都監儀軌』, 『興慶園移葬都監儀軌』 등 4종을 들 수 있다. 이를 <표 5>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⁴²⁾

39) 『崇禎五年(1632)六月十八日全羅道道茂朱縣赤裳山城實錄曝曬』
“壬申年(1632)6月18日曝曬時新來書冊”

40) 皇華集

41) 東國兵鑑, 周易諺解

42)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1632년 6월 작성), 태백산사고 실록형지안(1632년 7월 작성), 오대산사고 실록형지안(1632년 8월 작성)

<표 5> 1632년 적상산사고,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1	嘉禮都監儀軌	태백산/오대산	22	小學諸家集註	적상/태백(2)/오대
2	各年形止案	오대산(7)	23	詩經諺解	태백산/오대산
3	簡易辟瘟方	태백산(2)/오대산	24	新上形止案	오대산(8)
4	擊蒙要訣	적상산/태백산	25	新增東國輿地勝覽	태백산/오대산
5	經國大典	태백산/오대산	26	樂學軌範	태백산/오대산
6	高麗史	태백산/오대산	27	迎接都監賜祭廳儀軌	태백산/오대산
7	攷事撮要	태백산/오대산	28	王世子嘉禮瞻錄	적상산
8	國朝五禮儀	태백산/오대산	29	龍飛御天歌	태백산/오대산
9	內訓	태백산/오대산	30	前後續錄	태백산/오대산
10	大學諺解	적상산/태백산/오대산	31	靖社振武功臣都監儀軌	태백산/오대산
11	都監瞻錄	태백산	32	周易諺解	태백산/오대산
12	東國兵鑑	태백산/오대산	33	朱子書節要	태백산/오대산
13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적상산/오대산	34	中庸諺解	적상/태백(2)/오대(2)
14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오대산	35	春秋經傳集解	태백산/오대산
15	東醫寶鑑	태백산/오대산	36	辟疫神方	태백산/오대산
16	論語諺解	적상/태백(2)/오대(2)	37	辟瘟新方	오대산
17	孟子諺解	적상/태백(2)/오대(2)	38	桓祖定陵神道碑	태백산/오대산
18	四聲通解	오대산	39	皇華集	적상/태백(5)/오대(5)
19	書傳大全	태백산/오대산(2)	40	孝經大義	적상/태백/오대
20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태백산	41	訓蒙字會	태백산/오대산
21	宣宗大王懿仁王后冊禮都監儀軌	태백산	42	興慶園移葬都監儀軌	태백산
		누계	81종	111건(30)	

*()안은 중복건수

이상 1632년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이듬해인 1633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과 비교해 보자. 우선 1633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규모는 53종 116건이다. 마니산사고를 제외한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일반서책을 수록하고 있었던 오대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모두 36종 57건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마니산사고의 경우 17종 59건이 더 많은 것이다.

마니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과 다른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論語諺解』, 『孟子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小學諸家集註』, 『皇華集』, 『孝經大義』 등 7종의 서책은 1633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당시 유학의 기본서는 모든 사고의 형지안에 공통적으로 수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태백산 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었던 『王世子嘉禮都監儀軌』 1종은 1633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3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마니산사고의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는 서책들로써는 역사류와 천문산법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1633년 포쇄 후 실록형지안을 작성할 때 없었던 서책 2종과⁴³⁾ 한양으로 가지고간 서책 9종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서책의 건수와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서책의 건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1633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1633년 마니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번호	서명	건수	번호	서명	건수
1	各年形止案	8건	28	三國史	3건
2	擊蒙要訣	1건	29	三國史記	2건
3	高麗史	3건	30	三國史節要	1건
4	高麗史目錄年表世家	2건	31	宣靖陵改葬儀軌	1건
5	高麗史列傳	3건	32	昭武寧杜謄錄	1건
6	高麗史節要	3건	33	小學諸家集註	1건
7	高麗史節要斤標	2건	34	授時曆捷法立成	1건
8	高麗史志	2건	35	新增東國輿地勝覽	1건
9	高麗全史劔標	1건	36	歷代兵要	3건
10	高麗全史目標	1건	37	易學啓蒙	2건
11	古日記	1건	38	王世子嘉禮都監儀軌	1건
12	貢案	2건	39	龍飛御天歌	2건
13	觀音現相記	4건	40	李廷馨野史	1건
14	交食推步法	2건	41	貞觀政要	3건
15	國朝寶鑑	3건	42	中庸諺解	1건
16	太宗帝範附音註解	1건	43	陣法	2건
17	大學諺解	1건	44	遷陵都監儀軌	1건
18	東國史記	1건	45	初學字會	2건
19	東國史略	1건	46	春秋館史記草	1건
20	東國通鑑	4건	47	七政算內篇外篇	1건
21	東文選	8건	48	豐呈都監儀軌	1건
22	論語諺解	1건	48	皇華集	1건
23	孟子諺解	1건	50	回回曆經度立成	1건
24	穆陵修改儀軌	1건	51	回回曆緯度立成	1건
25	兵將說	3건	52	孝經大義	1건
26	北征錄	4건	53	訓辭	3건
27	射侯御製詩	3건			
		누계	53종	116건	

43) 曝曬案亦無: 高麗全史目標 東國通鑑(2종)

上京: 高麗史節要 東文選 兵將說 宣靖陵改葬儀軌 歷代兵要 易學啓蒙 李廷馨野史 陣法 初學字會(9종)

3.2.3 1645년

1645년 마니산을 제외한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규모는 모두 124종 184건이다. 81종 111건이었던 1632년에 비해서 종수로는 43종, 건수로는 73건 늘어난 수치이다. 건수로는 오대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이 44종 69건으로 가장 많지만 종수로는 태백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이 47종 58건으로 가장 많다. 적상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는 33종 57건이 수록되어 있다.

1645년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들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서책은 모두 25종으로 대부분 유학의 기본서적들이었다. 적상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만 수록된 서책으로는 『大典續錄』, 『三綱行實謄錄』, 『王世子嘉禮謄錄』, 『香室儀軌』 등 모두 4종의 서책을 들 수 있다. 태백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만 수록된 서책으로는 『光海君日記中草』, 『都監謄錄』,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迎接都監謄錄』, 『懿仁王后尊號大妃殿上尊號中宮殿冊禮王世子冊禮冠禮時冊禮都監儀軌』, 『纂修廳儀軌』, 『興慶園移葬都監儀軌』 등 모두 7종의 서책을 들 수 있다. 오대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만 수록된 서책으로는 『各年形止案』,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書傳大全』, 『辟瘟新方』 등 모두 4종의 서책을 들 수 있다.

1645년에 작성된 형지안들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묘향산사고의 서책이 적상산사고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상산사고 형지안에는 33종 57건의 일반서책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1632년 묘향산사고 형지안에 10종 10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3배 증가한 셈이다. 이것은 1634년 묘향산사고와 적상산사고가 통합하면서 장서량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양 사고의 통합과정에서 중복 서책도 24건이나 발생하였다. 중복된 서책으로는 『簡易辟瘟方』,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小學諸家集註』, 『皇華集』 등 6종의 서책과 『形止案』 1종 18건을 들 수 있다. 한편 적상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의 경우 의궤류를 1종도 수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대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는 11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태백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는 14종이 수록되어 있었다. 적상산사고 형지안에는 1661년이 되어서야 9종의 의궤류가 수록되고 있는데 1661년 이전에는 중앙에서 의궤류를 반사할 때 적상산사고에만 빠진 것인지, 아니면 형지안을 작성할 때 누락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상 1645년 3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45년 마니산을 제외한 세 곳의 사고에서는 163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불안하고 있는 일반서책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유학의 기본서적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중복된 서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은 1634년 묘향산사고와 적상산사고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장서량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전체 장서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백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는 1632년에 이어 의궤류를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7> 1645년 적상산사고,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1	嘉禮都監儀軌	태백산(2)/오대산	30	迎接都監都廳儀軌	태백산/오대산(2)
2	各年形止案	오대산(12)	31	迎接都監膳錄	태백산
3	簡易辟瘟方	적상(2)/태백(2)/오대	32	迎接都監米糶色儀軌	태백산/오대산(2)
4	擊蒙要訣	적상산/태백산	33	迎接都監盤膳色儀軌	태백산/오대산(2)
5	經國大典	태백산/오대산	34	迎接都監賜祭廳儀軌	태백산/오대산
6	高麗史	적상산/태백산/오대산	35	迎接都監宴享色儀軌	태백산/오대산(2)
7	攷事撮要	적상산/태백산/오대산	36	迎接都監應辨色儀軌	태백산/오대산
8	光海君日記中草	태백산(2)	37	迎接都監雜物色儀軌	태백산/오대산(2)
9	國朝五禮儀	적상산/태백산/오대산	38	王世子嘉禮膳錄	적상산
10	內訓	적상산/태백산/오대산	39	龍飛御天歌	적상산/태백산/오대산
11	大典續錄	적상산	40	懿仁王后尊號大妃殿上尊號中宮殿冊禮王世子冊禮冠禮時冊禮都監儀軌	태백산
12	大學諺解	적상산/태백산/오대산	41	資治通鑑綱目	적상산/태백산/오대산
13	都監膳錄	태백산	42	前後續錄	태백산/오대산
14	東國兵鑑	적상산/태백산/오대산	43	靖社振武功臣都監儀軌	태백산/오대산
15	東國新續三綱行實	적상산/오대산	44	周易諺解	적상산/태백산/오대산
16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오대산	45	朱子書節要	적상산/태백산/오대산
17	東醫寶鑑	적상산/태백산/오대산	46	中庸諺解	적상(2)/태백(2)/오대(2)
18	論語諺解	적상(2)/태백(2)/오대(2)	47	纂修廳儀軌	태백산
19	孟子諺解	적상(2)/태백(2)/오대(2)	48	春秋經傳集解	적상산/태백산/오대산
20	耐廟都監儀軌	태백산/오대산	49	辟疫神方	적상산/태백산/오대산
21	四聲通解	적상산/태백산/오대산	50	辟瘟新方	오대산
22	三綱行實膳錄	적상산	51	香室儀軌	적상산
23	書傳大全	오대산	52	形止案	적상산(19)
24	宣宗大王懿仁王后耐廟都監儀軌	태백산	53	桓祖定陵神道碑	적상산/태백산/오대산
25	小學諸家集註	적상(2)/태백(2)/오대(2)	54	皇華集	적상(2)/태백(5)/오대(5)
26	詩經諺解	적상산/태백산/오대산	55	孝經大義	적상산/태백산/오대산
27	新增東國輿地勝覽	적상산/태백산/오대산	56	訓蒙字會	적상산/태백산/오대산
28	樂學軌範	적상산/태백산/오대산	57	興慶園移葬都監儀軌	태백산
29	迎接都監軍色膳錄	태백산/오대산(2)			
누계			124종 184건(60)		

*()안은 중복건수

3.2.4 1661년

1661년 정족산사고를 비롯하여 모두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에는 모두 306종 426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정족산사고는 1660년(현종 1) 11월에 완공되었으며 그 이듬해 작성된

형지안에는 무려 143종 201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었다. 이 서책들은 마니산사고에서 옮겨온 것으로 짐작되는데 적상산사고 43종 72건, 오대산사고 60종 88건, 태백산사고 60종 65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또한 정족산사고의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들은 다른 사고에 비해 차별화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정족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는 의궤류가 모두 31종 수록되어 있다. 이는 오대산사고 형지안의 20종, 태백산사고 형지안의 23종, 적상산사고 형지안의 9종에 비해서 매우 많은 숫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고 형지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정족산사고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는 의궤가 꽤 많이 있다. 또한 정족산사고 형지안에는 다른 사고 형지안에 수록되지 않은 전문류인 『交食推步法』 외 18종과 개인 문집류인 『景軒集』 등 26종도 수록하고 있다. 정족산사고가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일반서책의 숫자도 많고 차별화되는 장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1661년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1661년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적상산사고,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1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태백/적상	90	諺解胎產集要	정족
2	嘉禮都監儀軌	오대	91	歷代兵要	정족(2)
3	各年形止案	오대(14)	92	迎接都監軍色膳錄	오대
4	簡易辟瘟方	오대/태백/적상(2)/정족	93	迎接都監軍色儀軌	오대/태백
5	擊蒙要訣	태백/적상/정족	94	迎接都監都廳儀軌	오대(2)/태백
6	經國大典	오대/태백/정족	95	迎接都監米糶色儀軌	오대(2)/태백
7	庚午元曆	정족	96	迎接都監盤膳色儀軌	오대(2)/태백
8	景軒集	정족	97	迎接都監賜祭廳儀軌	오대/태백/정족(3)
9	景賢錄	정족	98	迎接都監宴享色儀軌	오대(2)/태백
10	高麗史	오대/태백/적상/정족(2)	99	迎接都監應辨色儀軌	오대/태백
11	高麗史節要	정족	100	迎接都監雜物色儀軌	오대(2)/태백
12	攷事撮要	오대/태백/적상/정족	101	禮葬都監儀軌	태백/정족
13	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	정족	102	五星通軌	정족
14	觀音現相記	정족	103	王世孫册禮都監儀軌	정족(2)
15	交食推步法	정족	104	王世子嘉禮膳錄	적상
16	交食通軌	정족	105	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오대(2)/정족
17	國葬都監儀軌	정족(4)	106	龍飛御天歌	오대/태백/적상/정족(3)
18	國朝寶鑑	오대/태백/정족(2)	107	容齋集	정족
19	國朝五禮儀	오대/태백/적상/정족	108	牛溪先生集	정족
20	汲古集	정족	109	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오대/태백
21	懶翁行錄	정족	110	緯度太陽通經	정족
22	南冥先生文集	정족	111	遊頭流錄	정족
23	內宴御製詩	정족	112	儀禮經傳	태백/적상
24	內訓	오대/태백/적상/정족(2)	113	儀禮經傳通解	적상
25	論語諺解	오(2)/태(2)/적(2)/정(4)	114	儀禮集傳	태백
26	錄動都監儀軌	태백/적상/정족(3)	115	移安時形止案	정족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27	唐宋句法	정족	116	李太白文集	정족
28	棠陰比事	정족	117	仁祖大王實錄奉安形止案	정족(2)
29	大典續錄	적상/정족	118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오대/태백/정족
30	大統曆日通軌	정족	119	仁祖大王實錄形止案	오대
31	大學諺解	오대/태백/적상/정족(2)	120	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오대/태백/적상/정족
32	大學衍義	정족	121	資治通鑑綱目	오대/태백/적상/정족
33	獨谷集	정족	122	前後續錄	오대/태백
34	東國兵鑑	오대/태백/적상/정족	123	佔畢齋集	정족
35	東國史略	태백/정족	124	貞觀政要	정족
36	東國新續三綱行實	오대/태백/적상/정족	125	靖社振武功臣都監儀軌	오대/태백/정족
37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오대/태백	126	靖陵改葬都鑑儀軌	정족
38	東國地誌	정족	127	諸家曆象集	정족
39	東國通鑑	정족(3)	128	祭器都監儀軌	정족(2)
40	東文選	정족(3)	129	曹溪集	정족
41	東醫寶鑑	오대/태백/적상/정족	130	朝鮮賦	정족
42	潘谿集	정족	131	尊崇都監都廳儀軌	오/태/적/정(2)
43	孟子諺解	오(2)/태(2)/적(2)/정(4)	132	尊崇儀軌	정족
44	穆陵修改儀軌	정족	133	周易諺解	오대/태백/적상
45	兵將說	정족	134	朱子書節要	오대/태백/적상/정족
46	報漏都鑑儀軌	정족	135	重修大明曆	정족
47	保閑齋集	정족	136	中庸諺解	오(2)/태/적(2)/정
48	北征錄	정족	137	誌石都鑑儀軌	정족
49	殯宮都監儀軌	정족	138	止止堂集	정족
50	殯殿都監儀軌	정족(2)	139	芝川集	적상/정족
51	四聲通解	오대/태백/적상/정족	140	晉山世稿	정족
52	四餘纏度通軌	정족	141	眞逸集	정족
53	射侯御製詩	정족	142	昌德宮修理都監儀軌	정족
54	山陵都監儀軌	적상/정족(2)	143	冊禮都監都廳儀軌	오대/태백/정족
55	三綱行實膳錄	적상	144	遷葬都監儀軌	정족
56	三國史	정족	145	鐵城聯方集	정족
57	三國史記	정족	146	廳訟先生文集	정족
58	三國史節要	정족	147	追崇都監儀軌	정족(2)
59	三峯先生文集	정족	148	春秋經傳集解	오대/태백/적상/정족
60	三灘先生集	정족	149	春秋胡氏傳	정족
61	西厓擬古樂府	정족	150	冲庵先生集	정족(2)
62	書傳大全	오대/태백/정족	151	七政算	정족(2)
63	書冊置簿冊	정족	152	太陽通軌	정족
64	徐花潭先生集	정족	153	太陰通軌	정족
65	宣德十年月五星凌犯	정족	154	泰齋先生集	정족
66	宣明曆吵交會	정족	155	太宗帝範附音註解	정족
67	宣明曆經	정족	156	泰昌登極天使都監儀軌	정족
68	宣祖大王修正實錄奉安形止案	정족	157	圃隱先生文集	정족
69	宣祖大王實錄奉安形止案	정족	158	曝曬形止案	오대(3)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70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태백/적상/정족	159	豊呈都監儀軌	정족
71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태백/정족	160	辟疫神方	오대/태백/적상/정족
72	宣祖實錄奉安形止案	오대	161	辟瘟新方	오대
73	成謹甫先生集	정족	162	翰苑先生案	오대
74	世醫得效方	정족	163	香室儀軌	적상
75	世子册禮都監儀軌	태백/적상	164	形止案	오(2)/적(23)/정(19)
76	蘇齋先生文集	정족	165	火器都監儀軌	정족
77	小學診解	정족	166	桓祖定陵神道碑	오대/태백/적상
78	小學諸家集註	오(2)/태(2)/적(2)/정(3)	167	皇子誕生天使迎接都監儀軌	정족
79	授時曆經	정족	168	皇華集	오(2)/태(2)/적(2)/정(3)
80	授時曆捷法立成	정족	169	晦堂藁	정족
81	詩經診解	오대/태백/적상/정족	170	晦齋先生文集	정족
82	新增東國輿地勝覽	오대/태백/적상/정족(2)	171	圓圓歷經	정족
83	新纂辟瘟方	태백	172	孝經大義	오대/태백/적상/정족
84	實錄膳錄	태백	173	孝宗大王實錄形止案	오대/정족
85	實錄修正廳儀軌	오대	174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오대/태백/적상
86	實錄修正廳形止案	오대	175	訓蒙字會	오대/태백/적상/정족
87	實錄纂修廳儀軌	태백	176	訓辭	정족
88	樂學軌範	오(2)/태(2)/적(2)/정(2)	177	欽敬閣建設都監儀軌	정족
89	梁監軍接待都監儀軌	정족(2)			
누계 306종 426건(120)					

*()안은 중복건수

여기서 잠깐 확인해 보아야 할 점은 1661년 정족산사고에서 작성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과 1653년 이전 마니산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1653년(효종 4) 11월 마니산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실록에 피해가 컸으므로 마니산사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반서책 가운데도 소실된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1660년(현종 1) 12월 3일 정족산사고로 移安하는 과정에서 일반서책들이 온전히 移安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침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1653년 마니산사고에서 화재가 일어난 지 1년 뒤인 1654년에 작성된 실록형지안이 현전하고 있어 1661년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두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을 비교해보면 1661년 실록형지안에는 1654년의 형지안에 비해서 모두 8종의 서책이 새로 추가된 반면에 2종의 서책이 빠져나갔다. 새로 추가된 서책으로는 『宣祖大王修正實錄奉安形止案』, 『宣祖大王實錄奉安形止案』, 『移安時形止案』, 『仁祖大王實錄奉安形止案』(2건), 『孝宗大王實錄形止案』 등 형지안류 5종과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國葬都監儀軌[懿仁王后]』 등 의궤류 2종, 『景軒集』 등 문집 1종을 들 수 있다. 빠져나간 서책으로는 『睡軒先生詩集』, 『迎接都監都廳儀軌』 2종의 서책을 들 수 있다. 따라서 1660년 마니산사고에서 정족산사고로 이안하는 과정에서 일반서책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옮겨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5 1677년

1677년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들에는 모두 410종 629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1661년과 마찬가지로 정족산사고 형지안에 165종 247건이 수록되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대산사고 형지안에 92종 137건, 태백산사고 형지안에 79종 123건, 적상산사고 형지안에 74종 122건 순으로 수록되었다.

1661년의 형지안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컸던 것은 오대산사고와 적상산사고의 형지안이었다. 이 두 사고의 경우 16년 만에 30여종이 늘어났다. 오대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수록된 일반서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서언해, 유가류, 의궤류가 증가하였고 禮類인 『喪禮備要』, 『五先生禮說分類』, 『疑禮問解』 등이 처음으로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사서언해는 오대산사고 형지안뿐만 아니라 적상산사고와 태백산사고의 형지안에서도 늘어났다. 1661년에는 세 곳의 사고의 형지안에 총 4종 20건이 수록되었던 것에 비해서 1677년에는 총 4종 33건이 수록되었다. 세 곳의 사고에서 각각 4건씩 늘어난 셈이다. 오대산사고의 형지안에는 “自監營輸送 丁未(1667)8月 曝曬時上閣”이라 기재되어 있어서 1667년(현종 8) 8월 강원감영에서 사서언해를 가져와 포쇄할 때 사고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상산사고의 형지안에는 “忠淸道輸送 乙巳(1665)12月 入上”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665년(현종 6) 12월 충청도에서 사서언해를 가져와 사고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677년에 정족산사고를 제외한 세 곳의 사고에 새로운 사서언해 4건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상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은 오대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과 마찬가지로 수록된 일반서책의 숫자가 1661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사서언해, 예류, 의궤류, 형지안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紀效新書』, 『潛谷先生遺稿』 2종은 1677년에 작성된 적상산사고의 형지안에만 수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족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1661년 이후 22종이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老乞大』, 『交食通軌』, 『永寧殿修改都監儀軌』 등 3종의 서책은 1677년에 처음으로 수록되었고 정족산사고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정족산사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赤裳實錄膽出奉安後形止案』 1종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마지막으로 태백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1677년에 와서 비로소 형지안류가 수록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1677년에 작성된 태백산사고 형지안에는 29건의 형지안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전 형지안을 작성할 때 누락시켰던 것을 1677년에 와서 한꺼번에 등재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水色集』과 『仁宗明宗大王祔廟都監儀軌』 등 2종의 서책은 1677년에 작성된 태백산사고의 형지안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이상 1677년 각 사고의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1677년 태백산, 정족산, 오대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1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태(2)/정(2)/오/적(4)	107	樂學軌範	태(2)/정/오(2)/적(2)
2	嘉禮都監儀軌	오대(2)	108	梁監軍接待都監儀軌	정족(2)
3	各年形止案	오대(14)	109	諺解胎產集要	정족
4	簡易辟瘟方	태백/정족/적상(2)	110	歷代兵要	정족(2)
5	擊蒙要訣	태백/정족/적상	111	列聖御筆	태백/오대/적상
6	經國大典	태백/정족/오대	112	永寧殿修改都監儀軌	정족
7	庚午元曆	정족	113	迎接都監軍色膳錄	오대(2)
8	景軒集	정족	114	迎接都監都廳儀軌	태백/정족(2)/오대(2)
9	谿谷先生集	오대	115	迎接都監米糶色儀軌	오대(2)
10	高麗史	정족(2)/오대/적상	116	迎接都監盤膳色儀軌	오대(2)
11	高麗史記	태백	117	迎接都監賜祭廳儀軌	태백/정족(2)/오대
12	高麗史節要	정족	118	迎接都監宴享色儀軌	오대(2)
13	攷事撮要	태백/정족/오대/적상	119	迎接都監應辨色儀軌	오대
14	考出時形止案	정족(4)	120	迎接都監雜物色儀軌	오대(2)
15	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	정족	121	禮葬都監儀軌	태백/정족
16	觀音現相記	정족	122	五先生禮說分類	태백/정족/오대/적상
17	交食推步法	정족	123	五星通軌	정족
18	交食通軌	정족	124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태백/정족/오대/적상
19	國葬都監儀軌	정족(7)	125	王世孫冊禮都監儀軌[顯宗]	정족
20	國朝寶鑑	태백/정족/오대	126	王世子嘉禮膳錄	적상
21	國朝五禮儀	태백/정족/오대/적상	127	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정족/오대
22	汲古集	정족	128	龍飛御天歌	태백/정족(3)/오대/적상
23	紀效新書	적상	129	容齋集	정족
24	懶翁行錄	정족	130	牛溪先生集	정족
25	南冥先生文集	정족	131	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태백/오대
26	內訓	태백/정족/오대/적상	132	月汀先生集	태백/오대/적상
27	老乞大	정족	133	緯度太陽通經	정족
28	錄勳都監儀軌	태백/정족(3)/적상	134	遊頭流錄	정족
29	論語集註大全	태백/오대/적상	135	儀禮經傳	태백/적상
30	唐宋句法	정족	136	儀禮經傳通解	태백/적상
31	棠陰比事	정족	137	疑禮問解	태백/정족/오대/적상
32	大王大妃殿王大妃殿尊崇都監都廳儀軌	태백/오대/적상	138	移安時形止案	정족
33	大典續錄	정족/적상	139	伊川擊壤集	태백/오대/적상
34	大統曆日通軌	정족	140	仁祖大王實錄奉安形止案	정족(2)
35	大學諺解	태(2)/정(1)/오(2)/적(2)	141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태백/정족/오대
36	大學衍義	정족	142	仁祖大王實錄形止案	오대
37	大學章句大全	태백/오대/적상	143	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태백/정족/오대/적상
38	獨谷集	정족	144	仁宗明宗大王祔廟都監儀軌	태백
39	讀書錄	태백/정족/오대/적상	145	資治通鑑綱目	태백/정족/오대/적상
40	東國名筆	태백/오대/적상	146	潛谷先生遺稿	적상
41	東國兵鑑	태백/정족(2)/오대	147	赤裳實錄膳出奉安後形止案	정족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42	東國史略	태백/정족(2)	148	前後續錄	태백(2)/오대(2)
43	東國新續三綱行實	태백/정족/오대/적상(2)	149	佔畢齋集	정족
44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오대	150	貞觀政要	정족
45	東國地誌	정족	151	靖社振武功臣都監儀軌	태백/정족/오대
46	東國通鑑	정족(4)/오대/적상	152	靖陵改葬都監儀軌	정족
47	東文選	태백/정족(3)/오대	153	諸家曆象集	정족
48	峒隱先生遺稿	태백/정족	154	祭器都監儀軌	정족(2)
49	東醫寶鑑	태백(2)/정족/오대/적상	155	曹溪集	정족
50	論語諺解	태(3)/정(5)/오(3)/적(3)	156	朝鮮賦	정족
51	潘溪集	정족	157	尊崇都監都廳儀軌	태/정(4)/오(2)/적(2)
52	孟子諺解	태(3)/정(5)/오(3)/적(3)	158	尊崇儀軌[仁穆王后]	정족
53	孟子集註大全	태백/정족/오대/적상	159	朱文酌海	태백/정족/오대/적상
54	穆陵修改儀軌	정족	160	周易諺解	태백/오대/적상
55	兵將說	정족	161	周易傳義大全	태백/정족/오대/적상
56	報漏都監儀軌	정족	162	朱子書節要	태백/정족/오대/적상
57	保閑齋集	정족	163	重修大明曆	정족
58	祔廟都監都廳儀軌	정족(4)/오대(3)/적상(4)	164	中庸九經衍義	태백/오대/적상(2)
59	北征錄	정족	165	中庸諺解	태(3)/정(1)/오(3)/적(3)
60	批選龜峰先生詩集	태백/정족/오대/적상	166	中庸章句大全	태백/오대/적상
61	殯宮都監儀軌	정족	167	誌石都監儀軌	정족
62	殯殿都監儀軌	정족(4)	168	止止堂集	정족
63	四聲通解	태백/정족/오대/적상	169	遲川先生集	오대/적상
64	四餘纏度通軌	정족	170	芝川集	태백/정족/오대/적상(2)
65	射侯御製詩	정족(2)	171	晉山世稿	정족
66	山陵都監儀軌	정족(2)/적상(2)	172	眞逸集	정족
67	三綱行實曆錄	적상	173	昌德宮修理都監儀軌	정족(2)
68	三國史	정족	174	冊禮都監都廳儀軌	태(2)/정(5)/오(4)/적(4)
69	三國史記	정족	175	王世子及嬪宮冊禮儀軌	정족
70	三國史節要	정족	176	鐵城聯方集	정족
71	三峯先生文集	정족	177	廳訟先生文集	정족
72	三灘先生集	정족	178	追崇都監儀軌	정족(2)
73	喪禮備要	태백/정족/오대/적상	179	春秋	정족/오대/적상
74	西厓擬古樂府	정족	180	春秋經傳集解	태백/정족/오대/적상
75	書傳大全	태(3)/정(2)/오대(2)/적	181	春秋胡氏傳	태백/정족
76	書冊置簿冊	정족	182	冲庵先生集	정족
77	徐花潭先生集	정족	183	七政算	정족(2)
78	宣德十年月五星凌犯	정족	184	太陰通軌	정족
79	宣明曆經	정족	185	泰齋先生集	정족
80	宣祖大王修正實錄奉安形止案	정족	186	太宗帝範附音註解	정족
81	宣祖大王實錄奉安形止案	정족	187	泰昌登極天使都監儀軌	정족
82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태백/정족/적상	188	圃隱先生文集	정족/태백
83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태백/정족	189	曝曬時形止案	정족
84	宣祖實錄奉安形止案	오대	190	豊呈都監儀軌	정족
85	成謹甫先生集	정족	191	辟疫神方	태백/정족/오대/적상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86	世醫得效方	정족	192	辟瘟新方	오대(2)
87	世子册禮都監都廳儀軌[顯宗]	태백/정족	193	翰林先生案	오대
88	蘇齋先生文集	정족	194	漢史列傳	태백/정족/오대/적상
89	小學診解	정족	195	香室儀軌	적상
90	小學諸家集註	태(2)/정(4)/오(2)/적	196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오대/적상
91	水色集	태백	197	顯宗大王實錄形止案	오대/적상
92	授時曆經	정족	198	形止案	태(29)/정(21)/오(1)/적(25)
93	授時曆捷法立成	정족	199	火器都監儀軌	정족
94	睡軒先生詩集	정족	200	桓祖定陵神道碑	태백/오대/적상
95	詩經診解	태백/정족/오대/적상	201	皇子誕生天使迎接都監儀軌	정족
96	詩傳大全	정족/오대/적상	202	皇華集	태(2)/정(3)/오(2)적(2)
97	新刊仁齋直指方論	정족	203	晦棠藁	정족
98	新增東國輿地勝覽	태/정(2)/오/적	204	晦齋先生文集	정족
99	新纂辟瘟方	태백	205	回回曆經	정족
100	實錄閣重創時形止案	오대	206	孝經大義	태백/정족/오대/적상
101	實錄膳錄	오대	207	孝宗大王祔廟都監儀軌	오대
102	實錄奉審形止案	오대	208	孝宗大王實錄奉安形止案	정족/오대
103	實錄修正廳儀軌	오대	209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태백/오대/적상
104	實錄修正廳形止案	오대	210	訓蒙字會	태백/정족/오대/적상
105	實錄曝曬時形止案	오대(7)	211	訓辭	정족
106	心經附註	태백/정족/오대/적상	212	欽敬閣建設都監儀軌	정족
누계 410종 629건(219)					

*()안은 중복건수

3.2.6 1689년

1689년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에는 모두 481종 700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정족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 179종 250건이 수록되어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례류, 형지안류, 천문산법류, 개인문집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족산사고의 형지안에 따르면 1687년 8월 포쇄할 때 『高麗史節要』의 15종의 서책을 한양으로 가져가⁴⁴⁾ 일부만 다시 되돌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족산사고 형지안 다음으로 많은 일반서책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적상산사고 형지안으로 모두 102종 155건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1677년의 형지안에 비해서 28종 33건 늘어난 수치이다. 1689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1677년에는 형지안류를 기재할 때 통칭하여 전체의 건수로만 기재하였

44) 『康熙二十八年(1689) 四月日 考出時形止案』(奎 9618)

丁卯(1687)8月日 曝曬時上京: 高麗史節要 汲古集 東國兵鑑 東國通鑑 滯溪集 北征錄 三國史記 宣明曆經 世醫得效方 授時曆捷法立成 歷代兵要 止止堂集 眞逸集 診解胎產集要 晦棠藁 回回曆經(이상 16종)

던 것에 비해서 1689년에는 형지안류의 개별 서명을 일일이 밝혀서 기재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1689년의 형지안에는 『老乞大諺解』, 『明聖王后祔廟都監儀軌』, 『汾西集』, 『鳳村集』, 『祀殿別儀軌』, 『新刊仁齋直指方論』, 『實錄閣修改時儀軌』, 『實錄還安形止案』, 『心經發揮』, 『莊烈王后山陵都監儀軌』, 『推刷都監儀軌』 등 11종의 서책이 새로 수록되었다. 한편 1645년, 1661년, 1677년의 적상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되었던 『三綱行實謄錄』, 『實錄謄錄』, 『香室儀軌』 등 3종의 서책이 1689년 이후의 형지안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기재상의 누락은 아니고 분실이나 한양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상산사고의 형지안은 1689년부터 책의 보관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사고와의 차이점이다. 예를 들면 『新刊仁齋直指方論』의 경우 “6卷內 2卷腐破 1卷傷汚 丁卯(1687)”이라 기록하고 있어 1687년 2권이 부패로 인해 파손되고, 1권이 오염으로 인해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오대산사고 형지안에는 100종 149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태백산사고의 형지안에는 100종 146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오대산사고의 형지안에는 일반서책 중 병진(1676) 9월 사고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제 1677년의 실록형지안에는 수록되지 않고 있다가 1689년의 형지안에 와서야 비로소 수록된 서책들이 있다.⁴⁵⁾ 『明聖王后祔廟都監儀軌』, 『鳳村集』, 『汾西集』 등 3종의 서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3종의 서책은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는 “丁卯(1687) 4월”에 편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⁶⁾ 이 두 기록을 통해 위의 3종의 서책들은 오대산사고는 1676년 9월에, 적상산사고는 10여년 뒤인 1687년 4월에 각기 사고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책일지라도 같은 시기에 각 사고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사정에 따라 늦게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태백산사고의 형지안은 이렇다할만한 특징은 없으나 사서언해와 형지안 등의 중복된 서책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1689년에 와서 태백산사고 형지안에 새로 수록된 책으로 『慈懿王后尊崇都監儀軌』, 『王世子及嬪禮都監儀軌』 2종의 서책을 들 수 있다.

이상 1689년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1689년 정족산, 오대산, 적상산, 태백산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1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정족/태백(2)	127	梁監軍接待都監儀軌	정족(2)
2	嘉禮都監儀軌	정족/오대/적상/태백	128	諺解胎產集要	정족
3	各年形止案	오대(14)	129	歷代兵要	정족(2)
4	簡易辟瘟方	정족/적상(2)/태백	130	列聖御筆	오대/적상/태백
5	擊蒙要訣	정족/적상/태백	131	永寧殿修改都監儀軌	정족/적상
6	經國大典	정족/오대/적상/태백	132	迎接都監軍色謄錄	오대

45) 1689년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 『康熙二十八年(1689)四月日 考出時形止案』

“丙辰(1676) 9월入: 明聖王后祔廟都監儀軌, 鳳村集, 汾西集”

46) 1689년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 『康熙二十八年(1689)九月日 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丁卯(1687) 4월日: 明聖王后祔廟都監儀軌, 鳳村集, 汾西集”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7	庚午元曆	정족	133	迎接都監軍色儀軌	오대
8	景軒集	정족	134	迎接都監都廳儀軌	오대(2)
9	谿谷先生集	오대/태백	135	迎接都監米麵色儀軌	오대(2)/태백
10	高麗史	정족(2)/오대/적상	136	迎接都監盤膳色儀軌	오대(2)
11	高麗史記	태백산	137	迎接都監賜祭天使儀軌	정족(2)/오대
12	高麗史節要	정족산	138	迎接都監賜祭廳儀軌	정족(2)/태백
13	攷事撮要	정족/오대/적상/태백	139	迎接都監宴享色儀軌	오대(2)/태백
14	考出時形止案	정족(5)	140	迎接都監應辨色儀軌	오대
15	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	정족	141	迎接都監雜物色儀軌	오대(2)/태백
16	功臣座目	정족	142	禮葬都監儀軌	정족/태백
17	觀音現相記	정족	143	五先生禮說分類	정족/오대/적상/태백
18	光海君日記奉安時形止案	오대	144	五星通軌	정족
19	交食推步法	정족	145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정족/오대/적상/태백
20	交食通軌	정족	146	王大妃殿尊崇都監儀軌	오대/태백
21	國葬都監都廳儀軌	정족(5)	147	王世孫冊禮都監儀軌	정족/태백
22	國朝寶鑑	정족/오대/태백	148	王世子嘉禮都監儀軌	오대(2)/태백
23	國朝五禮儀	정족/오대/적상/태백	149	王世子及嬪宮冊禮儀軌	정족
24	汲古集	정족	150	王世子及嬪禮都監儀軌	태백
25	紀效新書	적상	151	王世子冊禮都監儀軌	정족/오대/적상(2)/태백
26	懶翁行錄	정족	152	龍飛御天歌	정족(3)/오대/적상/태백
27	南冥先生文集	정족	153	容齋集	정족
28	南別殿重建廳儀軌	정족	154	牛溪先生集	정족
29	內訓	정족(2)/오대/적상/태백	155	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태백
30	老乞大	정족	156	月汀先生集	오대/적상/태백
31	老乞大諺解		157	緯度太陽通經	정족
32	錄勳都監儀軌	정족(3)/적상/태백	158	遊頭流錄	정족
33	論語集註大全	오대/적상/태백	159	儀禮經傳	적상/태백
34	唐宋句法	정족	160	儀禮經傳通解	적상/태백
35	棠陰比事	정족	161	疑禮問解	정족/오대/적상/태백
36	大王大妃殿王大妃殿尊崇都監都廳儀軌	정족/오대/적상/태백	162	懿仁王后國葬都監儀軌	정족
37	大王大妃殿尊崇都監儀軌	오대(2)/태백	163	移安時形止案	정족
38	大典續錄	정족/적상	164	伊川擊壤集	오대/적상/태백
39	大統曆日通軌	정족	165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	정족
40	大學諺解	정/오(2)/적(2)/태(2)	166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적상/오대/태백
41	大學衍義	정족	167	仁祖大王實錄奉安形止案	오대(2)
42	大學章句大全	오대/적상/태백	168	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정족/오대/적상/태백
43	獨谷集	정족	169	仁祖朝實錄奉安形止案	정족/적상
44	讀書錄	정족/오대/적상/태백	170	仁祖朝實錄廳儀軌	정족
45	東國名筆	오대/적상/태백	171	仁祖朝實錄形止案	정족/적상
46	東國兵鑑	정족/오대/적상/태백	172	仁宗明宗大王祔廟都監儀軌	태백
47	東國史略	정족/태백	173	慈懿王后尊崇都監儀軌	태백
48	東國新續三綱行實	정족/오대/태백	174	資治通鑑綱目	정족/오대/적상(2)/태백
49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정족/오대/태백	175	莊烈王后山陵都監儀軌	적상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50	東國地誌	정족	176	赤裳實錄膳出奉安後形止案	정족
51	東國通鑑	정족(3)/오대/적상/태백	177	前後續錄	오대(2)/태백
52	東文選	정족(3)/오대/적상/태백	178	前後形止案	태백(34)
53	峒隱先生遺稿	정족/태백	179	佔畢齋集	정족
54	東醫寶鑑	정족/오대/적상/태백	180	貞觀政要	정족
55	論語諺解	정(5)/오(3)/적(3)/태(3)	181	靖社振武功臣都監儀軌	정족/오대/태백
56	溜溪集	정족	182	靖陵改葬都監儀軌	정족
57	孟子諺解	정(5)/오(3)/적(3)/태(3)	183	諸家曆象集	정족
58	孟子集註大全	정족/오대/적상/태백	184	祭器都監儀軌	정족(2)
59	明聖王后祔廟都監儀軌	오대/적상/태백	185	曹溪集	정족
60	穆陵修改儀軌	정족	186	朝鮮賦	정족
61	兵將說	정족	187	尊崇都監都廳儀軌	정족(3)/적상(2)
62	報漏都監儀軌	정족	188	尊崇都監儀軌	정족(4)/적상(1)
63	保閑齋集	정족	189	朱文酌海	정족/오대/적상/태백
64	鳳村集	오대/적상	190	周易諺解	오대/적상/태백
65	祔廟都監都廳儀軌	정(2)/오(3)/적(4)/태	191	周易傳義大全	정족/오대/적상/태백
66	祔廟都監儀軌	정족(2)/태백	192	朱子書節要	정족/오대/적상/태백
67	北征錄	정족	193	中宮殿册禮都監儀軌	정(2)/오(3)/적(2)/태(3)
68	汾西集	오대/적상	194	重修大明曆	정족
69	批選龜峰先生詩集	정족/오대/적상/태백	195	中庸九經衍義	오대/적상(2)/태백
70	殯宮都監儀軌	정족	196	中庸諺解	정/오(3)/적(3)/태(3)
71	殯殿都監儀軌	정족(3)	197	中庸章句大全	오대/적상/태백
72	四聲通解	정족/오대/적상/태백	198	誌石都監儀軌	정족
73	四餘纏度通軌	정족	199	止止堂集	정족
74	祀殿別儀軌	적상	200	遲川先生集	오대/적상/태백
75	射侯御製詩	정족산(2)	201	芝川集	정족/오대/적상(2)/태백
76	山陵都監儀軌	정족(2)/적상(6)	202	晉山世稿	정족
77	三國史	정족	203	眞逸集	정족
78	三國史記	정족	204	昌慶宮修理都監儀軌	정족/적상
79	三國史節要	정족	205	册禮都監儀軌	정족/적상
80	三峯先生文集	정족	206	遷陵都監儀軌	정족
81	三灘先生集	정족	207	遷葬都監儀軌	정족
82	喪禮備要	정족/오대/적상/태백	208	鐵城聯方集	정족
83	西厓擬古樂府	정족	209	廳訟先生文集	정족
84	書傳大全	정(2)/오(2)/적/태(2)	210	推刷都監儀軌	적상
85	書冊置簿冊	정족	211	追崇都監儀軌	정족(2)
86	徐花潭先生集	정족	212	春秋	정족/오대(2)/적상
87	宣德十年月日五星凌犯	정족	213	春秋經傳集解	정족/적상/태백
88	宣明曆經	정족	214	春秋胡氏傳	정족/태백
89	宣祖大王修正實錄奉安後形止案	정족	215	冲庵先生集	정족
90	宣祖大王實錄奉安形止案	정족	216	七政算	정족(2)
91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정족/태백	217	太陰通軌	정족
92	宣祖昭敬大王實錄奉安形止案	오대	218	泰齋先生集	정족
93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태백	219	太宗帝範附音註解	정족
94	成謹甫先生集	정족	220	泰昌登極天使都監儀軌	정족

번호	서명	사고	번호	서명	사고
95	世醫得效方	정족	221	圃隱先生文集	정족/태백
96	蘇齋先生文集	정족	222	曝曬時形止案	정족(2)
97	小學診解	정족	223	豊呈都監儀軌	정족
98	小學諸家集註	정(3)/오(2)/적(2)/태(2)	224	辟疫神方	정족/오대/적상/태백
99	昭顯嬪宮都監儀軌	정족	225	辟瘟新方	오대(2)
100	水色集	태백	226	漢史列傳	정족/오대/적상/태백
101	授時曆經	정족	227	翰苑先生案	오대
102	授時曆捷法立成	정족	228	顯宗大王改修實錄奉安形止案	오대
103	睡軒先生詩集	정족	229	顯宗大王改修實錄廳儀軌	오대/태백
104	詩經診解	정족/오대/태백	230	顯宗大王國葬都監儀軌	정족산
105	詩傳大全	정족/오대/적상/태백	231	顯宗大王祔廟都監儀軌	정족/오대/태백
106	詩傳診解	적상	232	顯宗大王殯殿都監儀軌	정족
107	新刊仁齋直指方論	정족/적상	233	顯宗大王實錄形止案	적상
108	新續三綱行實	적상산	234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정족/오대/적상/태백
109	新增東國輿地勝覽	정족(2)/오대/적상/태백	235	顯宗大王實錄形止案	정족/오대
110	新纂辟瘟方	태백	236	形止案	정족(21)/오대(3)/태백
111	實錄閣修改時儀軌	적상	237	火器都監儀軌	정산
112	實錄閣重創時形止案	오대	238	桓祖定陵神道碑	오대/적상/태백
113	實錄考出後曝曬形止案	적상(5)	239	皇子誕生天使迎接都監儀軌	정족
114	實錄臚出後曝曬形止案	적상	240	皇華集	정(3)/오(4)/적/태(2)
115	實錄奉審形止案	오대/적상(4)	241	晦棠藁	정족
116	實錄奉安形止案	적상(3)	242	晦齋先生文集	정족
117	實錄奉安後曝曬形止案	오대	243	回回曆經	정족
118	實錄修正廳儀軌	오대/적상	244	孝經大義	정족/오대/적상/태백
119	實錄修正廳形止案	오대/적상	245	孝宗大王祔廟都監儀軌	오대
120	實錄移安形止案	적상	246	孝宗大王實錄奉安形止案	정족/오대
121	實錄曝曬形止案	오대(7)/적상(18)	247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오대//적상/태백
122	實錄形止案	적상	248	孝宗朝實錄形止案	적상
123	實錄還安形止案	적상	249	訓蒙字會	정족/오대/적상/태백
124	心經發揮	적상	250	訓辭	정족
125	心經附註	정족/오대/적상/태백	251	欽敬閣建設都監儀軌	정족
126	樂學軌範	정/오(2)/적(3)/태(2)			
누계			481종 700건(219)		

*()안은 중복건수

3.2.7 1690

1690년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들에는 모두 485종 709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1689년의 형지안과 비교하면 겨우 4종 9건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 가운데 정족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것이 183종 258건, 적상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것이 102종 157건, 오대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것이 101종 152건, 태백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것이 99종 142건이었다.

정족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의 경우 『影幀模寫都監儀軌』,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冊寶修

改時儀軌, 『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 『莊烈王后殯殿都監儀軌』 등 5종의 서책이 새로 추가되었고, 『殯宮都監儀軌』 1종이 목록에서 빠졌다. 적상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實錄考出形止案』, 『實錄曝曬形止案』 등 형지안류 2건만 추가되었을 뿐 종수는 변함이 없었다. 오대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翰苑先生案』 1종이 추가되었고, 태백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1689년보다 오히려 1종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王世子及嬪禮都監儀軌』, 『翰苑先生案』 2종의 서책이 추가된 반면에 『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儀禮經傳通解』, 『顯宗大王改修實錄廳儀軌』 등 3종의 서책이 빠졌기 때문이었다. 이상 1690년의 경우 1689년과 비교할 때 시간적 간격이 좁아서인지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8 1691년

1691년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실록형지안에는 총 491종 686건의 일반서책이 수록되어 있다. 1690년의 형지안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6종의 서책이 증가하였으나 건수로는 23건이 줄어들었다. 정족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185종 264건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오대산사고 형지안이 105종 158건, 적상산사고 형지안이 104종 161건, 태백산사고 형지안이 97종 103건의 순이다.

태백산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는 수록된 일반서책의 분량이 조금씩 증가했지만 태백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오히려 2종 39건이 줄어들었다. 『迎接都監賜祭天使儀軌』, 『仁敬王后祔廟都監儀軌』, 『纂修廳儀軌』, 『莊烈王后祔廟都監儀軌』, 『顯宗大王改修實錄廳儀軌』, 『儀禮經傳通解』 등 6종의 서책이 새로 수록되었고, 『中宮殿冊禮都監儀軌』, 『樂學軌範』 등이 각각 1건씩 모두 2건이 추가되었지만 형지안류 1종 35건이 몽땅 빠졌고, 영접도감에서 작성한 『迎接都監米糶色儀軌』, 『迎接都監宴享色儀軌』, 『迎接都監雜物色儀軌』 3종과 『東國名筆』, 『伊川擊壤集』, 『翰苑先生案』, 『桓祖定陵神道碑』 4종도 모두 목록에서 빠졌다. 그리고 사서언해류의 건수가 줄어든 것도 전체적인 수치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었다. 정족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明聖王后祔廟都監儀軌』와 『莊烈王后祔廟都監儀軌』 등 2종의 서책만 새로 추가되었을 뿐 다른 변화는 없었다. 오대산사고 형지안의 경우는 『王世子嘉禮都監儀軌』, 『翰苑先生案』 2종의 서책이 목록에서 빠졌고 『明聖王后改修誌文』, 『莊烈王后祔廟都監儀軌』, 『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仁敬王后改修誌文』, 『翰苑先生案』, 『顯宗大王祔廟都監廳儀軌』 등 6종의 서책이 새로 수록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상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列聖御筆』 1종이 목록에서 빠졌고, 『莊烈王后祔廟都監儀軌』, 『仁敬王后改撰誌文』, 『儲承殿修理都監儀軌』 3종의 서책이 새로 수록되었다. 『莊烈王后祔廟都監儀軌』는 1691년 4곳의 사고 형지안에 동시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17세기 네 곳의 사고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전체 현황

사 고	전체		1610		1632		1645		1661		1677		1689		1690		1691	
	누적 종수	누적 건수	종수	건수	누적 종수	누적 건수	누적 종수	누적 건수	무적 종수	누적 건수	누적 종수	누적 건수	누적 종수	누적 건수	누적 종수	누적 건수	누적 종수	누적 건수
묘향/적상산 사 고	471	737 (266)	3	3	10	10	33	57 (24)	43	72 (29)	74	122 (48)	102	155 (53)	102	157 (55)	104	161 (57)
오대산 사 고	542	814 (272)	4	4	36	57 (21)	44	69 (25)	60	88 (28)	92	137 (45)	100	149 (49)	101	152 (51)	105	158 (53)
태백산 사 고	524	688 (164)	7	7	35	44 (9)	47	58 (11)	60	65 (5)	79	123 (44)	100	146 (46)	99	142 (43)	97	103 (6)
정족산 사 고	855	1,220 (365)	0	0	0	0	0	143	201 (58)	165	247 (82)	179	250 (71)	183	258 (75)	185	264 (79)	
누계	2,392	3,459 (1,067)	14	14	81	111 (30)	124	184 (60)	306	426 (120)	410	629 (219)	481	700 (219)	485	709 (224)	491	686 (195)

*()안은 중복건수

위 <표 11>을 통하여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연도별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7세기 전반기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일정하게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누계를 살펴보면 1610년 14종 14건에서 시작하여 1689년 481종 700건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반서책의 장서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1661년 정족산사고의 수치가 추가되었기 때문이었다. 위 표에서는 빠져 있지만 17세기 전반에 작성된 마니산사고 형지안에는 비슷한 시기 다른 세 곳의 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일반서책을 수록하고 있었다. 따라서 17세기 전반에도 위 표에 나타난 수치보다는 더 많은 일반서책이 여러 사고 실록형지안에 수록되어 있었다. 정족산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17세기 전반기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상산사고의 경우 1610년 3종 3건으로부터 시작하여 1689년 102종 155건까지 늘어났으며 이후에는 증가세가 크게 약해져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두 군데의 사고의 경우도 1689년에 정점을 찍고 있음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족산사고의 추가라는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전체적 추세가 증가세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실록형지안은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일반서책의 목록도 실려 있어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적상산사고,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정족산사고 등 네 곳의 사고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작성된 형지안 31종을 대상으로 여기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목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의 특징을 각 사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러 사고들 가운데 형지안에 일반서책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던 곳은 정족산사고였다. 정족산사고에서 작성된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은 누적종수 855종에 누적건수는 1,220건이었다. 이는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정족산사고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은 내용적으로도 다른 사고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 우선 의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交食推步法』과 같은 천문산법류도 정족산사고의 형지안에만 수록되어 있고 개인문집도 다른 사고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수록하고 있다.

정족산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고들 사이에는 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앞서 살펴본 정족산사고와 비교한다면 나머지 세 곳의 사고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들 세 사고의 형지안은 1610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7세기 전반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대산사고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대산사고 형지안의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연도는 1632년과 1677년이었다. 우선 1610년 4종 4건에 불과하던 것이 1632년에는 36종 5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때 늘어난 서책들은 대부분 사서언해류, 의례류, 형지안류, 유가서류, 의서류 등이었다. 1677년에도 크게 늘어났는데 1661년 60종 88건이던 것이 1677년 92종 13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오대산사고의 경우 1677년 무렵이 되면 일반서책의 장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머지 사고의 경우도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기본적 흐름은 비슷하였다.

다음으로 17세기 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현황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17세기 전반기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일정하게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1610년 14종 14건으로 미미한 규모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크게 늘어나서 1689년에는 481종 700건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조선전기의 史庫들은 임진왜란 당시 대부분 파괴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전란을 거치고 난 뒤 여러 史庫들을 재건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당시 사고의 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각 사고에 소장된 일반서책들이었다. 그리고 일반서책 목록을 통해서 사고의 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시점이 1689년 무렵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영철. “태백산사고의 연혁과 사고지 현황.” 『사고지 조사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1986.
 배현숙. 『조선실록연구서설』. 대구: 태일사, 2002.
 백 린. “향산실록 포쇄 이안 무주적상산형지안.” 『국학자료』 2(1972. 4). 18-20.

- 신병주. “실록형지안을 통해본 조선왕조실록의 관리체계.” 『국사관논총』 102(2003).
- 신병주. “조선왕조실록의 봉안의식과 관리.” 『한국사연구』 115(2001). 75-105.
- 신석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 『사충』 5(1960).
- 안미경.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55(2013. 9). 291-335.
- 이현중. “개항 후 사고 보존 상황.” 『백산학보』 8(1976). 459-487.
- 조병유. 『적성지』. 권5. 고적.
- 차용걸 외. 『사고지조사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1986.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所藏儀軌目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